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日帝強占初 農業學校의 設立・運營과
卒業生의 就業實態

2012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朴 芝 媛

日帝強占初 農業學校의 設立·運營과
卒業生의 就業實態

指導教授 金 泰 雄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朴 芝 媛

朴芝媛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2年 6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國文抄錄

본 논문은 日帝強占初 농업학교의 설립 경위와 교육 목표, 학제와 교습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졸업생 진로의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특징과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殖産興業政策의 일환으로 商工 중심의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가 운영과 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권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강제되고 통감부가 들어서면서 대한제국기에 전개된 실업교육은 변질되었다. 통감부는 문명 진보의 수단으로 실업 교육을 선전하였고, 정치색이 가미된 인문교육을 가급적 배제시킴으로써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무마·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농·공·상의 실업 교육 중에서도 농업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내용과 방향을 전환하였다. 조선의 米穀을 개량·증산하여 이를 일본에 반출하는데 농업 교육이 가장 긴요했기 때문이었다.

농업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일제는 각 道에 농업학교를 설립하였다. 통감부가 구상한 초기의 농업학교는 농업 개량을 추진하고, 토지조사사업 및 지역의 從業者를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업학교는 강점 이후에 한층 변모되었다. 이 시기 농업학교는 일제의 농사 개량 정책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모범적인 농업 경영을 하면서, 조선 농민에게도 개량 농법을 지도·장려할 수 있는 篤農家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정비되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충량한 농민”, “성실 근면한 농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총독부의 농사 개량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농업학교의 교육 목표는 그 學制와 敎習 실태의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강점 초기에 농업학교에서는 졸업 후 實業自營者의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며,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조선총독부

의 농업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농사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교습하는데에 치중하였다. 농업학교 학생들은 근검, 성실 등 일제가 조선 농민에게 요구했던 각종 덕목과 조선 농업의 '개량', '진보'에 기여할 만한 것으로 特定된 지식 기능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농업학교에는 지역 사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일본과는 달리 응용적이고 근시일 내에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농업 교과목과 교육과정이 강제되었다. 특히 '優良種'(일본 품종)의 보급을 위해 '作物' 과목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였다. 이 모든 교육 과정은 완전한 농사 과정을 배우는 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體化되었다.

하지만 농업학교가 모범농을 배출하는 본래의 교육 목표를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려운 實情이었다. 농업학교 학생들은 道内の 秀才들로서 중등 본위의 교육을 받고자 했으며 그 나름의 사회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졸업생은 해마다 관공직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종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졸업생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 농업학교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일본 농업학교 졸업자와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일본 농업학교 졸업자들의 약 80%는 졸업 후 곧바로 實業에 종사했지만, 관청 봉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이유는 조선의 교육적 여건이 일본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초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중등 교육 기관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던 반면에 조선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업학교가 지역 내에서 거의 유일한 중등 교육 기관이었다. 이에 농업학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정책 수행을 보조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선인 농업학교 졸업자들은 부차적인 職務이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농업학교 졸업생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

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도 취업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동인이 되었다. 농업학교 졸업생 중에는 학교에서 습득한 개량 농법을 적용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 기반이 취약했던 대부분의 학생은 졸업 후 농업 경영을 하는 것보다 職業을 얻어 가계 수입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에 농업학교에서는 졸업생의 자가 영농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영농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조선의 농업학교는 관직으로의 등용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191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졸업생들이 사회적 수요에 따라 관공직으로 취업하는 행보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권업 방면으로 진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본래의 농업학교 설립 목적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선의 농업 개량에 一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 농업학교는 이후로도 모범 농민 양성 기관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공리 등의 진출 통로가 되는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이상에서 일제 강점 초 농업학교의 설립·운영과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진단하였다. 강점 후 농업학교는 지주층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에 따라 篤農家를 양성하기 위한 실업 교육 기관이었다. 하지만 농업학교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던 중등 교육 기관의 하나이기도 했다. 조선인 학생들은 일제하 지주제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로 진출하였다. 이는 일제의 농업 정책 및 교육 정책이 기층 조선 사회와 충돌하면서 빚어진 현상이었다.

주요어 : 農業學校, 農業教育, 實業教育, 篤農家, 卒業生의 就業

학 번 : 2008-23175

次 例

國文抄錄

I. 序 言	1
II. 農業學校의 設立經緯와 教育目標	4
III. 農業學校의 學制와 教習實情	19
IV. 卒業生의 就業實態	40
V. 結 語	55
參考文獻	59
Abstract	65

表 次 例

[표 III-1] 1910년대 道別 中等 수준의 관공립학교 설립 현황	20
[표 III-2] 농업학교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1910~1921)	21
[표 III-3] 학교별 입학 자격	24
[표 III-4] 농업학교의 규모와 구성원 현황 (1911~1918)	26
[표 III-5] 영변공립농업학교 施設一覽 (訓練에 관한 내용)	28
[표 III-6] 농업학교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 중 농업 과목 ..	32
[표 III-7] 농업학교 교육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 중 數學, 理科, 圖畫, 體操	34
[표 IV-1] 전국 농업학교 졸업자 진출 현황	41
[표 IV-2] 영변공립농업학교 졸업생(1912~1922)의 취직 상황	42
[표 IV-3] 해주공립농업학교 재학생의 장래 지망 조사 (1923)	46
[표 IV-4] 청주공립농업학교 재학생 부형의 자산 상황 (1912)	49

I. 序 言

개항 후 정부는 농업적 상품 생산을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환하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 방편의 하나로 근대식 농업의 진흥을 추구하였다. 농업 진흥은 상공업의 발전을 담보하는 부국강병책의 일환이었다. 農桑會社와 農務學堂의 설립, 量田·地契 사업의 실시 등은 그러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하지만 을사늑약 체결 이후 통감부가 들어서면서 조선의 농업 정책은 크게 변질되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여 자국의 과밀한 농업 인구를 해소하고 값싼 식량을 반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과 기업가 지주들은 일본의 농업을 移植하여 조선의 농업, 특히 米作을 개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조선 각 道에 설립된 것이 바로 농업학교였다.

이렇게 설립된 농업학교는 일제의 농사 개량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모범적인 농업 경영을 하면서, 조선인 농민에게 개량 농법을 지도 장려하는 篤農家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었다. 여기서 실시된 농업 교육은 근검·성실 등 농민이 지녀야 할 덕목을 갖추게 하고, 조선 농업의 '개량', '진보'에 이바지하는 선별적 농업 지식을 실습을 통해 단기간에 습득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총독부의 농사 개량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일제의 농업 교육 정책은 구상과 목표, 운영 등의 측면에서 농업학교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었다.

한편, 강점 직후 조선에 농업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등 교육 체계가 수립되면서, 농업학교는 京畿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道에서 우수한 중등 교육 기관이 되었다. 농업학교 이외의 중등 교육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의 교육 현실 속에서 농업학교는 해당 道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인들은 농업학교에 취학함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실현시켜나갔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급한 교육 기관에 불과했던 농업학교가, 조선의 차별적 교육 현실 속에서 오히려 조선인 학생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통로로 기능했던 것이다. 학교 본래의 운영 목표와 다소 괴리가 있는 이 같은 상황은 日帝強占初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과 농업 정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은 ‘低度’, ‘簡易’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 농업학교의 學制와 敎習實態,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통해서 그 실상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농업학교는 주로 통감부 시기나 일제강점기의 실업 교육 정책 혹은 농업 정책에 대한 연구 속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되거나,¹⁾ 개별 학교사 차원의 연구에 국한되었다.²⁾ 농업학교 전반을 단일 주제로 다룬 연구는 1910년대 농업학교를 조선의 勸農體制의 일환으로 파악한 것이 유일하다. 여기에서는 일본 농업학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점 직후 조선의 농업학교

-
- 1) 黃雲性, 『韓國農業教育史』, 大韓出版社, 1967.
 洪德昌, 「大韓帝國時代の 實業教育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李漢基, 「日帝時代 農村指導事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박소영, 「일제 식민지하의 실업학교 교육과정 변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원호, 『實業教育』, 하우, 1996.
 金喆植, 「韓末·日帝期の 實業教育 政策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吉川萬壽彦, 「統監府의 實業教育政策과 土地調査事業: 學部次官 俵孫一(1869-1944)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성열, 「제3차 한일협약 전후 관공도립실업학교의 변화-일본인 학부차관의 교육간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26-1, 2004.
- 2) 孫庸碩, 「1930~1940년대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운영과 성격」,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손용석, 「일제강점기 농업학교 운영 연구-경성공립농업학교 교장 野村稔의 역할을 중심으로」, 『郷土서울』80, 2012.

관련 법령과 훈령 등을 분석하여, 조선의 농업학교가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모범적 농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규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농업학교가 직면했던 농업 현실이나 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이와 연관된 농업학교 졸업생의 취업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³⁾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일제의 농업 정책 속에서 농업학교의 설립 경위와 목표, 운영의 실상을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중등 교육 기관이 희소했던 조선의 교육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농업학교의 위상과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첫째, 통감부가 농업학교를 설립한 경위와 강점 후 조선 총독부의 農政 수행상의 필요에서 농업학교의 교육 목표를 篤農家 양성 기관으로 정비하는 과정을 추적하겠다. 둘째, 농업학교의 學制와 敎習實態를 검토하여, 일본과는 다르게 시행되었던 조선 농업학교 운영의 특징을 명확히 할 것이다. 셋째, 조선 농업학교의 특수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졸업생의 취업 동향을 진단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3) 土井浩嗣, 「1910年代の朝鮮における公立農業學校—植民地期朝鮮の勸農體制と關連して」, 『동북아문화연구』13, 2007.

II. 農業學校의 設立經緯와 教育目標

19세기 후반 조선의 농업 문제는 신분, 토지, 부세 및 상품 생산·미곡 무역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개항 후 일본과의 미곡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토지 집적은 심해져갔고, 청일 전쟁과 영일 동맹 이후 일본인에 의한 토지 잠매까지 자행되면서 농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조선의 농촌 사회와 농민층이 급격히 분해되는 가운데 토지에서 유리된 자는 점증하였고, 이로 인한 신분·계급간 갈등과 민족간 대립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⁴⁾

고종을 필두로 한 정부·지배층은 위와 같은 사회 모순을 타개하는 동시에 농업적 상품 생산을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연결시키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지주적 입장의 개혁론에 입각하여 근대적 소유 관계를 확립하고, 부세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는 동시에 농업의 진흥을 강조했다. 농업의 진흥은 상공업의 발전을 담보하는 부국강병책의 하나였다. 농업이 발달하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산업이 번창하여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農桑會社를 설치하여 농지 개발을 추진하거나 農務學堂 등을 설립하여 서양 근대 농학을 도입하기도 하였다.⁵⁾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종은 大韓帝國을 수립하고 舊本新參의 기치 아래 光武改革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개혁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量田·地契 事業을 전개하면서 근대화의 토대인 상공업을 진흥하여 외국 상인 및 자본으로부터 국내 상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殖産興

4) 金容燮, 「朝鮮王朝 最末期의 農民運動과 그 指向」,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韓末·日帝下의 地主制와 農業問題』(중보판), 지식산업사, 2000, 362~367쪽.

5) 金容燮, 「近代化過程에서의 農業改革의 두 方向」, 위의 책, 25~29쪽.

_____, 「甲申·甲午改革期 開化派의 農業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II)』, 지식산업사, 2004, 76~89쪽.

業政策에 주력하였다.⁶⁾ 국가를 保全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에는 근대적 산업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때의 실업 교육 정책은 농업보다는 상·공업 관련 기술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⁸⁾ 그러나 대한제국의 재정이 열악하여 각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정과 지출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학교의 설치가 지체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다.⁹⁾

이런 가운데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제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內政을 관장하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기의 실업 교육 정책은 변질되었다. 통감부는 조선의 교육 체제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개편하면서 농업 교육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는 일본의 국내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대신, 본국의 과밀한 농업 인구를 이주시키고 값싼 식량과 자원을 반입할 수 있는 식민지를 확보하고자 했다.¹⁰⁾ 조선 쌀은 일본인의 기호에 맞았

6) 대한제국의 식산흥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姜萬吉, 「大韓帝國時期的 商工業問題」, 『亞細亞研究』16-2, 1973.

조재곤, 「대한제국기의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 『한국학논총』34, 2010.

7) 『독립신문』 1897년 8월 7일자, 1899년 5월 15일자; 『皇城新聞』 1898년 11월 19일자, 1899년 3월 14일자 등.

8) 고종은 國과 民을 위한 급선무 5가지 중 하나로 상공학교를 거론할 정도로 상공 교육의 진흥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었다(『高宗實錄』卷38, 高宗 35년 10월 30일자; 『舊韓國官報』 1899년 6월 28일자, 「商工學校官制」(勅令 第28號)). 이외에 鑛務學校나 郵務學堂, 電務學堂 관련 법령도 제정되었다. 농업 분야 가운데서는 양잠 교육에 비중이 두어졌는데, 이 또한 제조 산업을 일으켜 자주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김영희, 「開港後 蠶業振興法の 一研究(1876~1905)」,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22~30쪽).

9) 『皇城新聞』 1900년 1월 19일자, 1901년 9월 19일자, 1904년 9월 24일자 雜報.

10) 「對韓方針竝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日本外交文書』37-1, 351~356쪽.

일본은 자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주제를 보호 육성하는 과정에서 지

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개항 이후부터 일본으로 반출되던 상황이었다.¹¹⁾ 러일전쟁 이후 일본 農商務省과 지방의 관리들은 조선 농업에 대한 보고서와 이민 안내 책자들을 출간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에 건너오는 일본인 농업 이민자와 토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 지주들이 급증하게 되었다.¹²⁾ 이들은 조선에 비해 토지생산성이 높은 일본의 농업을 移植하여 조선의 농업, 특히 米作을 개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선에 농업 기술 기구를 설립하고 농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고조되었다.

한편, 개항 이후 농촌 경제가 악화된 속에서 몰락한 농민들은 근거지를 잃고 유리하거나, 의병 운동에 참여하여 제국주의의 침탈과 봉건적 수탈에 저항했다.¹³⁾ 그리고 계몽 운동가에 의해서는 전국적으로 학교 설립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렇게 설립된 학교에서는 애국심의 고양, 인재 양성, 民志 개발과 문명 발달, 국권의 회복 등을 設學 이념으로 강조하였다.¹⁴⁾ 이와 같은 민심 이반과 국권 회복 운동은 일제의 통치 체제 확립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통감부가 구상한 농업 교육은 농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민족 교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이에 통감부는 가급적 인문 교육을 배제한 실업 교육(농업 교육)을 실시

주적 토지 소유가 가중되고 경영 영세화가 확대되는 내부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다(楫西光速 외, 『日本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全)』, 東京大學出版會, 1958, 16~23쪽). 게다가 일본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일본 미국 시장의 수요는 점점 증대되었고 일본 국내의 쌀 생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井上晴丸, 『日本資本主義の發展と農業及び農政』, 中央公論社, 1972, 153~172쪽).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제국주의적 전략을 택했다.

- 11) 吉野誠, 「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12, 1975, 37~38쪽.
- 12) 金용섭, 「日帝의 初期 農業植民策과 地主制」,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韓末·日帝下의 地主制와 農業問題』(증보판), 지식산업사, 2000, 38~44쪽.
- 13) 金도형, 『大韓帝國期の 政治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94, 311~370쪽.
- 14) 金홍수, 「1905년~1910년의 민족교육운동의 실태」, 『역사교육논집』26, 2000, 277~284쪽.

하고자 했다. 타와라 마고이치(俵孫一)는¹⁵⁾ 통감부의 學部次官으로 활약하면서 실업 교육 정책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言論에 耽하고 政權에 憧憧하여 遊惰消遊 ... 悲憤慷慨하여 時事를 論議”¹⁶⁾하는 조선인이 심히 많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政事’와 ‘教育’을 혼동하는 조선인의 그릇된 교육관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그가 생각하기에 조선의 학문은 대체로 儒學, 그 가운데 治國平天下와 관련된 經世學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조선의) 교육은 政事の 學이고 교육을 받는 것은 관리가 되는 준비”¹⁷⁾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학생은 “輕佻浮薄, 空論徒食의 民 ... 입만 앞선 조숙한 인간”¹⁸⁾으로 육성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서 타와라는 여러 차례의 연설을 통해 조선의 교육이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四民 일반에게 교육을 보급하여 農·工·商 各 業에 종사하는 자 일반에게 건전한 상식을 얻게 하고 나아가 學理를 그 업에 응용하여 산업의 발달을 기하게 해야”¹⁹⁾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일제가 강조한 실업 교육은 인문 교육과 구별되어 문명 진보의 수단으로 선전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 운영과 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란 대한제국의 실업 교육 방침과 체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통감부는 농·공·상의 실업 교육 중에서도 농업 교육에 치중하였다.

15) 타와라 마고이치(俵孫一)는 1906년 통감부 서기관 겸 학부 촉탁을 겸임하고, 1907년 8월 7일 학부차관이 된 통감부 교육 정책의 최고 권위자였다. 그는 1895년 오키나와(沖繩)의 촉탁으로 활동하면서, 훗날 대한제국 탁지부 고문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수행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와 함께 토지정리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이성열, 앞의 논문, 58쪽, 각주 3 참조).

16) 俵孫一, 「韓國 實業學校の施設」, 『韓國中央農會報』5-2, 1910.

17) 『隆熙二年七月 第二回官公立普通學校教監會議要錄』(이하 『教監會議要錄』), 附錄 「第八 觀察使會議ニ於ケル俵學部次官演說要領」(1908년 5월), 48쪽(渡部學·阿部洋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이하 『史料集成』)65, 龍溪書舍, 1991에 수록).

18) 『教監會議要錄』, 「第三 學部次官訓示」(1908년 7월), 37쪽.

19) 각주 17과 같음.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貴國(=대한제국-필자 주)의 공업은 유치하고 그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심히 많아 ... 다수 인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농업의 개량에 착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²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의 산업 중 농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타와라도 조선은 農業國이고 농업 교육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¹⁾ 그러면서 통감부는 상공학교가 개편된 농상공학교를 폐지하고 농업을 강화하는 형태로 學制를 조정하면서,²²⁾ 농업 교육을 전담할 農林學校를 시급히 확충·개편하였다.²³⁾

게다가 통감부는 농림학교 이외의 정규적인 교육 기관도 갖추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지에는 농업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학교는 일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중학교가 설치되어 1900년 이후 매년 평균 10만 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었고, 그 이외에 각종 실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업학교도 운영되고 있었다.²⁴⁾ 이러한 일본의 학제 속에서 농업학교는 농가의 자제를 위한 농업 교

20)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1回」(1906년 3월 13일),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第6卷 上, 嚴南堂書店, 1964, 137쪽.

21) 『教監會議要錄』, 「第三 學部次官訓示」(1908년 7월), 39쪽.

22) 『舊韓國官報』 1907년 3월 26일자, 「農商工學校官制廢止」(勅令 第14號).

23) 『舊韓國官報』 1906년 8월 30일자, 「農商工部所管農林學校官制」(勅令 第39號); 1906년 9월 13일자, 「農商工部所管農林學校規則」(農商工部令 第48號).

반면, 공업 교육은 工業傳習所라는 간이한 형태의 교육 기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상업 교육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私立善隣商業學校)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었다(『舊韓國官報』 1907년 2월 8일자, 「農商工部所管工業傳習所官制」(勅令 第6號);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1930, 230쪽; 善隣中·高等學校同門會, 『善隣80年史』, 1978, 101쪽)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농상공학교의 폐지 및 각 과의 분리 독립에 대해서 실업 교육의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농업 교육의 외형적인 부분에 국한된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공업 교육은 축소되었으며, 상업 교육은 점차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24) 文部省編, 『日本の教育統計: 明治-昭和』, 文部省, 1971.

육을 행하는 부수적인 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었다.²⁵⁾ 하지만 통감부가 조선에 설립하고자 했던 농업학교는 보통학교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 기관이었다. 타와라는 1908년 7월 보통학교 교감 회의석상에서 보통학교 졸업생들을 수용할 교육 기관의 설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보통학교 졸업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즉 학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 도저히 諸君의 학교 소재지 모두에 고등 교육의 설비를 하는 것은今日の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地點을 한정하여 ... 설비해야 한다. ... 京城의 高等學校와 동일한 학교는 지방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미 (한국의) 문명 부강을 도모한 이상은 各人이 富하고 國이 富하는 것이 필요하고, 各人이 富해지는 데에는 實業을 장려하는 것에 미칠 것이 없다. 고로 ... 그 토지에 적응하는 實業學校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²⁶⁾

이처럼 통감부는 조선에 고등 교육을 행하는 교육 기관, 그 중에서도 高等學校와²⁷⁾ 같은 인문 교육 기관은 설립을 기피하였다. 조선인의 독립 의지

25) 일본의 농업학교는 「實業學校令」(1899)과 「農業學校規程」(1899)에 의해 甲種과 乙種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농가의 자제가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중등 농업 교육을 시행하던 교육 기관이다. 갑종농업학교는 高等小學校 4학년(14세) 또는 동 능력을 가진 졸업자에게 입학 자격을 주고 수업 연한은 3년이었으며, 졸업자들은 2년제의 전공과나 1년제의 보습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을종농업학교는 尋常小學校 4학년 졸업(10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를 입학시키고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1912년 일본에는 갑종농업학교가 82개교, 을종농업학교는 167개교 운영되고 있었다(高山昭夫, 『日本農業教育史』, 農山漁村文化協會, 1981, 105~106쪽).

26) 『教監會議要錄』, 「第三 學部次官訓示」(1908년 7월), 41쪽.

27) 고등학교는 남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을 행하는 곳으로 정해졌지만, '고등'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연령 12세 이상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라면 입학할 수 있는 중등 교육 기관이었다(『舊韓國官報』 1906년 8월 31일자, 「高等學校令」(勅令 第42號)).

와 정치 의식을 고취하는 조선의 교육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정책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학교 졸업생을 위한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실업학교로 상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실업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상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1909년 4월 27일에 칙령 제56호로 「實業學校令」이 공포되었고²⁸⁾, 1909년 7월 7일에는 학부령 제1호로 「實業學校令施行規則」이 제정되었다.²⁹⁾ 「실업학교령」에 따르면 실업학교는 實業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제1조), 農業學校, 商業學校, 工業學校(徒弟學校 포함) 및 實業補習學校로 나뉘어졌다(제2조).

이상의 법령이 마련된 직후에 부산과 인천에는 상업학교가 각각 1개교씩 설립되었다.³⁰⁾ 이는 日人의 영향 하에 있던 日語學校를 실업학교로 전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공업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은 있지 않았다. 반면에 농업학교는 1道에 1校씩 설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여타 학교에 비해서 농업학교는 설립 지역이 방대하고 사업의 규모가 컸던 관계로 설립지를 물색하고 비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³¹⁾ 그리하여 1910년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3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설립에 착수할 수 있었다.³²⁾ 이 때 농업학교 설립지로 가장 먼저 결정된 지역은 경상북도 대구, 평안남도 평양, 전라북도 전주, 함경남도 함흥의 네 군데였고, 그 밖의 道에도 농업학교의 설립 위치가 선정되었다.³³⁾ 이런 과정을 거쳐서

28) 『舊韓國官報』 1909년 4월 27일자, 「實業學校令」(勅令 第56號).

29) 『舊韓國官報』 1909년 7월 7일자, 「實業學校令施行規則」(學部令 第1號).

30) 『皇城新聞』 1909년 4월 13일자, 1909년 5월 26일자 雜報.

31) 『皇城新聞』 1909년 12월 9일자; 『大韓每日申報』 1909년 12월 9일자, 1910년 1월 12일자 雜報.

32) 『皇城新聞』 1910년 1월 28일자, 2월 6일자, 3월 15일자 雜報.

33) 『皇城新聞』 1910년 1월 28일자, 2월 2일자, 3월 1일자 雜報; 『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10일자, 5월 24일자 雜報.

1911년 『朝鮮農會報』에서는 부산과 인천을 제외하고 실업학교의 명칭을 농업학교로 통일한다고 하였다(「實業學校名稱變更」, 『朝鮮農會報』6-12, 1911, 23쪽). 따라

1910년 한 해에만 12개의 농업학교가 신설되었고,³⁴⁾ 이듬해에는 1개의 학교가 폐지된 반면 4개의 학교가 추가로 문을 열게 되었다.³⁵⁾

농업학교의 설립 과정에서는 학부 보조금 외에도 해당 학교가 소재한 道의 보조금이 투입되었다.³⁶⁾ 지방 보조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校舎 지원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³⁷⁾ 이 때 농업학교에 제공된 校舎는 옛 교육기관의 터, 그 중에서도 특히 鄉校인 경우가 많았다.³⁸⁾ 농업학교를 향교 자리에 설치하는 조치는 농업학교에 지방 중등 교육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었다.³⁹⁾ 기존에 해당 향교 자리를 빌려서

서 본 논문에서는 혼선을 피하고 논지를 선명히 하기 위해서 1911년 이전에 실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농업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표기하였다.

- 34) 1910년에 신설된 道公立實業學校는 충청남도 공주,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 군산,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 제주, 경상북도 대구, 경상남도 진주, 강원도 춘천, 평안남도 평양, 평안북도 정주, 함경남도 함흥, 함경남도 북청에 위치했다(『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 648~649쪽). 그런데 이상에서 언급된 학교들은 사실상 농업학교였다. 1911년 이전에는 학교명이 實業學校, 農學校, 農林學校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농업학교에 다름 아니었다.
- 35) 1911년에는 황해도 해주, 평안북도 의주, 평안북도 영변, 충청북도 청주에도 道公立實業學校가 설치되었고, 정주의 농업학교는 개교 1년 만에 폐지되었다(『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1), 833~834쪽;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5월 1일자).
- 36) 『皇城新聞』 1910년 1월 30일자 雜報;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30일자, 3월 9일자 雜報.
- 37) 『皇城新聞』 1910년 2월 6일자 雜報.
- 38) 향교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춘천, 북청, 해주, 대구의 농업학교이다(『春農工高百年史』, 2010, 172쪽; 『北農百年史』, 1993, 77쪽; 『礎-沙農會誌』, 1995, 11쪽; 『大農五十年史』, 1960, 29쪽). 평양농업학교의 전신이었던 사립평양농림강습소 1회 졸업식이 明倫堂에서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평양농업학교도 향교에 근거를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리진호, 『한국지적사』, 바른길, 1999, 928쪽). 이외에 진주의 농업학교는 경상감영 소속의 樂育齋 자리에, 제주의 농업학교는 五賢壇이 있었던 橋林書院 자리에 설립되었다(『晉農八十年史』, 1990, 36~39쪽; 『濟農八十年史』1, 1990, 104쪽).
- 39) 대한제국 정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당 郡의 향교에 中學校를 설립하려고 했다(『舊韓國官報』 1899년 4월 6일, 「中學校官制」(勅令 第11號) 중 第13條).

운영하고 있었던 사립학교는 신설된 농업학교에 편입되었다.⁴⁰⁾ 관찰사나 군수를 비롯하여 지역 명망가들이 설립한 사립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농업학교로 대체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런데 농업학교 설립 의도에 관한 정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발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타와라가 조선에 실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言說을 통해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1차적으로 농업학교 소재지로 선정된 대구, 평양, 전주, 함흥에 대해,

全國을 通한 地理的 關係의 中心됨과 比較的 廣大한 平野 耕地를 控하여 農業改良의 端을 啓함에 便利할뿐더러 土地調査事業과 耕地廣大한 地方에 多數의 從業者를 要⁴²⁾

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이들 지역은 전국의 지리적 중심지이고 비교적 광대한 평야 경지가 가로 놓여있어 농업 개량의 단서를 여는 데에 편리하고, 土地調査事業 등으로 다수의 從業者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통감부가 구상한 초기의 농업학교는 농업 개량을 추진하고, 토지조사사업 및 지역의 중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40) 리진호, 『한국지적사』, 바른길, 1999, 963쪽의 [표 8]참조.

41) 전주농업학교는 1910년 3월 14일에 私立涵育學校의 校地 일부와 校舍 한 棟을 기증받아 이를 기초로 시작되었다(리진호, 『한국지적사』, 바른길, 1999, 924쪽). 涵育學校는 전주 유지 다수가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명망 있는 학교였다(『皇城新聞』 1906년 11월 12일자 雜報, 13일자, 14일자 廣告). 청주농업학교의 경우 1911년 8월 1일 私立 普成學校 부지와 건물 전부를, 같은 달 29일 청주군 객사를 인계받아 개교했다(『청농팔십년사』, 1991, 126쪽). 普成學校의 정식 학교명은 忠北普成中學校였는데, 당시 군수 閔泳殷이 그 설립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皇城新聞』 1906년 9월 5일자 廣告; 『清州誌』, 清州市誌編纂委員會, 1961, 412쪽).

42) 『皇城新聞』 1910년 1월 28일자, 「實業學校에 關한 意見(俵學部次官의 談話)」(俵孫一, 「韓國實業學校의 施設」, 『韓國中央農會報』5-2, 1910에 동일한 내용이 수록됨).

이처럼 농업학교가 농업개량 외에도 토지조사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⁴³⁾ 일제가 추진한 토지조사사업은 농무 수행상 기초가 되는 동시에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사업이었다. 토지조사사업 초기의 농업학교는 하급 측량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대구, 전주, 평양, 함흥, 광주와 제주의 농업학교에는 토지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 교육을 주로 행하는 1년 미만의 속성과가 부설되었다.⁴⁴⁾ 농업학교 본과 과정에서도 측량 과목은 일반 농업 과목과 구별되어 敎習되었다.⁴⁵⁾ 농업학교 속성과 졸업생들은 임시토지조사국의 技手로 임명되었다.⁴⁶⁾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제가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병합한 것을 계기로 한층 정비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정식 기술원 양성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11년 5월에는 임시토지조사국 양성소가 설치되고, 6월부터는 농업학교에서의 측량교육이 폐지되었다.⁴⁷⁾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조선 교육에 대한 법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1911년 8월 23일 칙령 229호로 「朝鮮敎育令」을 공포하였다.⁴⁸⁾

이때의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조선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本義는 일본 제국의 衆량한 國民을 육성하는 것이었다(제1조, 제2조). 하지만 일제 강점 초기 농업정책을 주도한 혼다 고노스케(本田幸介)⁴⁹⁾의 언급처럼, 농업학교의 목표는 “단지 衆량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머

43) 각주 1의 吉川萬壽彦, 이성열 논문 참조.

44) 『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9일자 雜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 648쪽.

45) 『舊韓國官報』 1909년 7월 7일자, 「實業學校令施行規則」(學部令 第1號) 別表 「農業學校敎科課程及每週敎授時數表」.

46) 리진호, 「한국 토지조사사업 중 교육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22-2, 2010, 80쪽.

47)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編,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491쪽.

48) 『朝鮮總督府官報』(第304號) 1911년 9월 1일자, 「朝鮮敎育令」(勅令 第229號).

49) 혼다 고노스케(本田幸介)는 일본의 東京帝大 農學部 교수로 제직하다 1906년 5월 勸業模範場 技師 겸 場長으로 부임하여 1919년까지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과 농업 교육을 주도한 농업의 최고 권위자였다(本田幸介, 「朝鮮を去るに臨んで」, 『朝鮮農會報』14-11, 1919).

무는 것이 아니라 조선 농업의 개량 발달에”⁵⁰⁾ 있었기 때문에 한층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學部事務官이었던 사와 세이타로(澤誠太郎)는⁵¹⁾ 농업학교의 교육방침에 대해 편찬한 『農業教育에 관한 私見』에서 농업 교육 기관이 조선 농업의 개량 발달에 이바지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低度の 농업 교육이라는 것은 ... 장래 특히 보급·발달을 요한다고 사료된다. 듣건대, 조선에는 일본 내지와 다르게 당국의 장려 지도를 인도하고 받들어 술선수범을 보이고 지도자와 일반 人民의 중간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개량 지도의 효과가 지극히 낮다(권업당국자의 말)고. ... 低度 농업 교육을 받은 자는 민간에서 당국의 지도를 이해하고 술선 진보적으로 經營하여 일반 인민에게 모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졸업생의 수가 많은 만큼 농업 개선의 사업은 용이하게 보급할 수 있다.⁵²⁾

이에 따르면 ‘低度の 농업 교육’이란 당국의 농업 지침을 이해하고 그 방침에 따라 술선수범으로 농업 경영을 하여 일반 농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篤農家’⁵³⁾), 기능면에서는 지도자와 인민의 중간적 연락을 취할 수 있

50) 本田幸介, 「農業教育者の責務」, 『朝鮮農會報』9-1, 1914, 11~12쪽.

51) 사와 세이타로(澤誠太郎)는 1909년 10월에 學部編輯官 겸 事務官에 임명되고 이듬해 10월에 관립한성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가 1911년에 귀국하였다(『皇城新聞』 1909년 11월 16일자 敍任及辭令; 『每日申報』 1910년 10월 2일자, 10월 4일자, 1911년 11월 2일자).

52) 澤誠太郎, 『農業教育ニ關スル私見』, 7~8쪽(『史料集成』69 수록).

53) ‘篤農家’, ‘篤行者’, ‘模範農’ 등은 조선총독부가 주력한 농사 개량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마츠모토 다케노리는 篤農家가 대체로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에 호응하여 스스로 근검과 ‘개량 농법’을 실천하고, 더하여 洞里 단위에서 농사 개량과 근검 저축을 주도하거나 또는 자기 소작인을 조직하여 그것을 장려했던 在村耕作地主”라고 분석하였다(松本武祝, 「1910年代における農事改良政策と在村地主層」,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社會評論社, 1998, 40쪽).

는 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와를 비롯한 권업당국자는 조선 농업의 개선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低度の 농업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에서 사와가 상정한 低度の 농업 교육 기관은 농업보습학교에 해당하였다.⁵⁴⁾ 「조선교육령」 제정 당시에 농업학교는 ‘低度’, ‘簡易’의 구호 아래 농업보습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되고 있었다. 당시 「朝鮮教育令」에 관해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의견을 종합한 『朝鮮學制案의 要旨』를 검토하면 농업학교를 포함한 실업학교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학교는 나중에 고등 정도의 학교를 설치할 시기가 있을 것이나, 당분간은 낮은 정도의 과정에 그치고 보통학교 졸업생을 수용하여 초등의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명칭은 법령상 실업학교로 칭하고 혹은 傳習所나 講習所로 칭하는 것도 무방하다.⁵⁵⁾

실업학교는 徒弟學校, 補習學校의 과정으로 수산, 농업, 임학, 공업, 상업 등의 초등실업학교이다. 보통학교 부설로 하는 경우도 있다.⁵⁶⁾

즉, 통감부 시기에 설립된 실업학교가 강점 이후에는 일반적인 중등 실업 교육 기관이 아닌 전습소나 강습소와 같은 수준의 ‘낮은 정도’ 즉, ‘초등의’ 실업교육을 행하는 곳으로 상정되었다. 1909년 「實業學校令」에서 실업학교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로 구분되고, 徒弟學校는 공업학교에 포함되는 것이었다(제2조). 그런데 실업보습학교와 도제학교는 「實業學校令」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부대신에 의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는 한 단계 낮은 교육 기관이었다(제10조). 위에서와 같이 실업학교를 도

54) 澤誠太郎, 위의 책, 7쪽.

55) 寺內正疑(추정), 『朝鮮學制案ノ要旨』, 11쪽(『史料集成』69 수록).

56) 앞의 책, 부록 「朝鮮學校制度案」.

제학교, 보습학교의 과정으로 간주한다면, 「朝鮮教育令」 제정 당시 논의되고 있었던 실업학교는 통감부 시기의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⁷⁾ 그 결과 농업학교는 강점 이전에 농업보습학교 정도의 위상과 역할로 왜소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때 구상된 농업학교는 당국의 농업 지침을 이해하고 그 방침에 따라 술선수범으로 농업 경영을 하여 일반 농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농업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低度の 농업 교육 기관이었다.

이와 같이 농업학교의 교육 목표가 규정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농업 개발에 대한 농민의 부정적인 반응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농사 개량 정책의 핵심으로 米作 개량을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시행사항으로 多額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우량” 품종(일본 품종)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⁵⁸⁾ 그리고 각종 시험 재배 결과를 제시하면서 우량종의 수확량이 재래종의 그것보다 월등하다고 선전하였다.

그렇지만 조선 농민으로서는 조상 대대로 심어온 품종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본 품종은 조선 재래종과 비교할 때 성숙 시기, 이삭의 모양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 농민들은 일본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흉작의 불안에 시달렸다.⁵⁹⁾ 그리고 일본 품종은 조선 재래종보다 물이 많이 필요하여 관개가 잘 되는 上畓에서 경작해야만 좋은 작황을 기대할 수 있었다.⁶⁰⁾ 그런데 조선의 농촌은 19세기의 사회 혼란을 거치면서 점점 피폐해졌고, 그나마 있던 수리 시설도 파괴

57) 「실업학교령」의 실업보습학교가 「조선교육령」에서 ‘簡易’實業學校로 바뀌었던 것도 실업학교의 위상이 격하된 사실을 반영했다(「조선교육령」 제21조 참조).

58) 『朝鮮總督府官報』(第460號) 1912년 3월 12일자, 「米作改良増殖獎勵ニ關スル訓令」(朝鮮總督府訓令 第10號);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農業政策과 植民地 地主制: 이른바 「米作改良政策」을 중심으로」, 『韓國史論』20, 1988.

59) 向坂幾三郎, 「稻作改良에 對하야」, 『朝鮮農會報』7-3, 1912, 2쪽; 한국농촌진흥청編, 『농업 근대화의 여명』, 2008, 453~454쪽.

60) 向坂幾三郎, 「稻作改良에 對하야」, 『朝鮮農會報』7-3, 1912, 2~3쪽.

된 상태에 있었다.⁶¹⁾ 이런 상황에서 관개가 잘 되는 良質의 논에 일본 벼를 심으라는 것은 일본 품종을 불신하던 조선 농민들에게 있어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다. 조선의 농민들은 농업상의 애로와 더불어 일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일본인에 의한 농사 지도 자체를 미심쩍게 여기고 있었다. 일제가 농사시험장을 조성할 때 조선 농민들이 亂을 일으키거나 採種團을 습격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⁶²⁾

이런 가운데 일본인 권업 당국자들은 조선 농민들이 개량 종자의 우수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종자를 바꾸고, 개량 농구를 사용하고, 주말한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쯤은 감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 단기 강습회와 품평회 등을 개최하거나, 篤農家를 표창하고 지원하면서 그 실적을 일반 농민들에게 홍보해 나갔다.⁶³⁾ 지역 사회의 중등 교육 기관이었던 농업학교 역시 ‘몽매한 농민’을 誘示指導하고 졸업자는 학교에서 배운 바를 實地에 시험해 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⁶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업학교의 학생은 직접 농사를 경영하는 篤農家로서 농민을 지도하는 것이 本分으로 여겨졌다. 농업학교의 교육 과정도 학생들이 졸업 후 학교 소재의 道內에서 보통학교 교원이나 府·郡·道의 官吏가 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전제 하에 결정되고 있었다.⁶⁵⁾ 일선 농

61) 한국농촌진흥청 編, 『농업 근대화의 여명』, 2008, 433쪽.

62) 김도형, 앞의 책, 346~347쪽.

63) 松本武祝, 앞의 논문, 33~34쪽.

64) 『每日申報』 1914년 12월 13일자.

是以로 各 重要地에 農業學校를 設置하고 或은 模範場을 設하야 此를 一般農業者에게 誘示指導할 畧 안이라 一邊 農法(業-필자 주)卒業者로 하야곰 獎勵指導케 하나니, 凡 農業學校를 卒業한 者는 其所學을 實地에 試하고 又는 外他蒙昧한 農夫를 指導함이 卽 本職이라 할지오 ... 如是則 自今 以後 朝鮮은 農産國의 本性을 發揮하야 富力을 增進하리니 ... 故로 一言蔽之曰 朝鮮의 金融을 圓滑케하랴면 外資의 輸入을 望치 안이치 못할지오 外資의 輸入은 卽 精粹한 米穀을 輸出함에 在하다할지오, 精粹한 米穀을 調製하랴면 農業卒業者가 一般農民을 善爲指導함에 在하다 하노라.

업학교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직접 농지를 경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⁶⁶⁾ 일제가 조선에서의 실업 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직을 좋아하는 조선인의 습성을 비판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농업학교의 교육 목표 설정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농업 경영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업 교육을 구상하였다. 더욱이 道の 보통학교 우수생들이 농업학교에 대거 입학하면서 그들을 농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농업 교육은 더욱 주도면밀하게 계획·실행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농업학교의 학제와 교습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65)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農業學校教科ニ關スル調査要項」(1912), 141쪽.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에 대해서는 각주 110 참조.

66)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實業學校教科ニ關スル調査ニ對スル意見書-大邱公立農業學校」(1912), 292쪽; 본 논문 각주 183, 184.

Ⅲ. 農業學校의 學制와 敎習實情

농업학교는 강점 직후 실업보습학교 정도의 지위를 가진 低度의 농업 교육기관으로 정비되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농업학교보다 상위의 교육기관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학교의 지역 내 위상은 상당히 낮았고, 그 결과 우수한 인재들은 농업학교로 몰려드는 형편이었다.

1912년 조선 전역에는 15개의 농업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같은 해에 제주공립농업학교는 간이농업학교로 전환되었고,⁶⁷⁾ 1914년에 안주공립간이농업학교는 안주공립농업학교로 승격되었다.⁶⁸⁾ 1918년에 이르자 경기도와 함경북도에는 京城公立農業學校와 鏡城公立農業學校가 각각 설치되었다.⁶⁹⁾ [표 Ⅲ-1]은 이상에서 언급한 1910년대 농업학교를 포함하여 각 道別 중등 수준의 관공립학교 설립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농업학교는 굵은 글씨로 표시).

이에 따르면 道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되었던 高等普通學校⁷⁰⁾·商業(商工)學校와는 달리, 농업학교는 각 道에 최소한 1군데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全北·平北·咸南처럼 한 道 내에 2개의 농업학교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1919년 3·1 운동 직전까지 농업학교가 유일한 관공립 중등 교육 기관이었던 道는 忠北·忠南·全北·全南·黃海·平北·江原·咸北의 8道였다. 이는 전국 13道の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혼다 고노스케가 “한 두 지방에서는 다른 고등학교도 있지만, (농업학교는) 대체로 말하자면 최고의

67)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5월 8일자.

68) 안주공립간이농업학교는 1912년 5월 18일부터 안주공립보통학교에서 독립했고(『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5월 22일자), 학교 측이 농업학교로 전환하기를 요구함에 따라 1914년 3월에 공립농업학교로 승격되었다(『每日申報』 1914년 2월 9일자;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3월 3일자).

69)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3월 2일자, 1918년 3월 20일자.

70) 1911년 9월 1일 「朝鮮教育令」이 제정·공포되어 기존의 고등학교가 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朝鮮教育令」 제11조~제19조 참조).

[표 III-1] 1910년대 道別 중등 수준의 관공립학교 설립 현황

	① 1914년 3월 이전	② 1914년 3월~1919년 4월
京畿道	경성고등보통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인천공립상업학교	경성공립농업학교(1918.5)
忠淸北道	청주공립농업학교	-
忠淸南道	공주공립농업학교	-
全羅北道	전주공립농업학교, 군산공립농업학교	전주고등보통학교(1919.4)*
全羅南道	광주공립농업학교	-
慶尙北道	대구공립농업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1916.5)*
慶尙南道	진주공립농업학교, 부산공립상업학교	-
黃海道	해주공립농업학교	개성공립상업학교(1919.3)
平安南道	평양고등보통학교*, 평양공립농업학교	안주공립농업학교(1914.4) 진남포공립상공학교(1916.4)
平安北道	의주공립농업학교, 영변공립농업학교	-
江原道	춘천공립농업학교	-
咸鏡南道	함흥공립농업학교, 북청공립농업학교	함흥고등보통학교(1918.4)*
咸鏡北道	-	鏡城공립농업학교(1918.4)

자료: ①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3), 710~713쪽

② 『朝鮮諸學校一覽』(1919), 177쪽 및 187~191쪽

비고: ① *은 관립학교이다.

② 「專門學校規則」(조선총독부령 제26호, 1915년 3월 24일 공포)에 따라 전문학교로 승격한 학교는 제외했다.

교육 기관⁷¹⁾이라고 평할 정도로 농업학교는 道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식적인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독점적 교육 기관이었다.

당시 보통학교 졸업자 가운데 상급 학교로의 진학 희망자는 매우 많은 편이었다.⁷²⁾ 그런데 漢城府의 보통학교 졸업생 대다수가 고등학교(34.7%)나 상업학교(24.5%)로 진학하고자 했던 반면, 여타 지역의 보통학교 졸업생 중에는 농업학교(39.1%) 지망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방

71) 本田幸介, 「農業教育者の責務」, 『朝鮮農會報』9-1, 1914, 11~12쪽.

72) 「各種教育統計」(1910), 11쪽(『史料集成』66 수록). 漢城府의 보통학교 졸업생 307명 중 274명(89.3%), 그리고 한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보통학교 졸업생 672명 중 496명(73.8%)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에 소재한 보통학교 졸업생에게는 농업학교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⁷³⁾ 이에 따라 농업학교는 지역의 우수한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그에 따라 입학 경쟁도 치열하게 되었다. [표 III-2]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학교 지원자는 입학자의 2~3배에 달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시기 조선인을 위한 초등 교육 기관인 보통학교의 입학 희망자가 전원 합격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⁷⁴⁾

[표 III-2] 농업학교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1910~1921)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지원자	912	998	968	1,071	1,292	1,300	1,347	1,564	1,357	1,152	1,173	2,277
입학자	307	521	538	601	677	692	703	743	773	687	783	997
입학률	34%	52%	56%	56%	52%	53%	52%	48%	57%	60%	67%	44%

자료: 朝鮮總督府, 『大正十年十一月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이하 『답신서』Ⅱ로 줄임), 부록 3~6쪽

비고: 1915년 이후에 존재했던 소수의 일본인 학생은 제외했다.

이처럼 농업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높았던 까닭은 졸업 후에 취직이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1911년에는 아직 농업학교 졸업생이 1명도 배출되지 않았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 비해 농업학교 지망자가 많은 이유로 “졸업 후 奉職이 예정되어 있다”⁷⁵⁾ 점을 지적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 일반에서는 전국적으로 중등 학교가 희소한 상황에서 농업학교를 졸업하면 郡守나 技手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⁷⁶⁾

73) 金龍淵 외, 「두고 온 모교, 떠나 온 동창 8: 영변 농업학교」, 『北韓』44, 1975, 49쪽, 3회 졸업생 金龍淵 씨 회고담.

74) 김자중, 「1910년대 보통학교에 대한 지역 간 대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6쪽의 [표 III-1].

75) 『普通學校實業學校學事狀況報告要錄(自明治四十三年十月至同四十四年九月)』, 『實業學校卜民心』(1911년 9월), 2쪽.

76) 『大農五十年史』, 1960, 68쪽.

그런데 위에서와 같은 농업학교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과 태도는 일제가 원래 의도한 농업학교의 설립 목표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학교는 원래의 학교 설립 취지에 걸맞도록 학생 선발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학교 운영자들은 篤農家の 자질을 갖춘 명민한 학생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원래 1911년의 「朝鮮教育令」에서는 농업학교 입학 자격을 연령 12세 이상,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⁷⁷⁾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농업학교의 설립 의도에 부합하도록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입학 지침이 마련되었다.

첫째, 농업학교에서는 보통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법적으로는 보통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학교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공립보통학교 출신에 한정해서 무시험 추천 입학이 가능했고, 공립보통학교와 사립학교 학생의 학력 및 기타 성적이 동등할 경우에는 공립보통학교 출신자에게 先入權을 주었다.⁷⁸⁾ 사립학교나 서당 출신자는 “완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教授의 통일에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교과와 진도에 장애”⁷⁹⁾가 된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⁸⁰⁾ 이상과 같은 기준에 부합해서 농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각 郡 공립보통학교의 우등생인 경우가 아주 많았다.⁸¹⁾ 가령, 1917년 대구공립농업학교 입학생 60명 가운데

77) 「朝鮮教育令」 제23조.

78) 朝鮮總督府, 『大正五年十二月 農業學校長會同聽取事項答申書』(이하 『答申書』 I), 1916, 「북청」, 37쪽; 『每日新聞』 1916년 2월 22일자.

79)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朝鮮人教育實業學校要覽』(이하 『實業學校要覽』), 1914, 부록 「大正元年十二月 農業學校學長會同ノ際ニ於ケル指示事項」(1912), 52쪽.

80) 이는 사립보다 공립을 우대하면서 사립학교를 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고마고메 다케시 著·오성철 외 譯,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115~116쪽).

81) 李楨燮 외, 「두고 온 모교, 떠나 온 동창 7: 북청 농업학교」, 『北韓』43, 1975, 87쪽.

데 공립보통학교를 1~5등으로 졸업한 자가 총 41명이었고, 이 중 1등 졸업자는 무려 15명이나 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농업학교에 입학하고 있었다.⁸²⁾

둘째, [표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학교의 입학에는 父兄의 자산 수준과 학생의 농업 종사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했다. 우선, 대부분의 농업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이 입학청원서를 제출할 때 이력서나 혹은 거주 면에서 발급하는 재산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⁸³⁾ 강점 초기 농업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郡 추천 장학생(給費生) 이외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마련해야 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였다.⁸⁴⁾ 무엇보다도 농업학교의 교육 목표상 졸업생들은 농업에 전념해야 하는데, 가계가 곤란한 학생은 농사보다 “봉급에 衣食하고자 하는 희망”⁸⁵⁾을 갖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정의 재력은 입학 자격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 아울러, 구두 입학시험을 행하는 경우 일본어 능력과 더불어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견고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⁸⁶⁾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려는 학생의 의지는 篤農家가 될 수 있는 자질과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매우 중시되었다.

82) 『每日申報』 1917년 4월 15일자.

83)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12일자, 「生徒募集廣告」; 『每日申報』 1915년 3월 11일자; 『答申書』 I, 「북청」, 37쪽 등.

84) 농업학교 학생들은 가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중도 퇴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양과 안주공립농업학교의 경우 3년간 각각 61명, 80명이 중도에 퇴학했는데, 이 중 가사상의 이유로 퇴학한 경우가 각각 49명, 65명이었다(『朝鮮總督府平安南道統計年報』(1915), 51~52쪽; 같은 책(1916), 67~68쪽; 같은 책(1919), 60쪽). 1920~30년대 문화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 金振九의 경우 1914년에 청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했으나 집안의 가난으로 1학년만 마치고 자퇴했다(김태웅, 「일제강점기 김진구(金振九)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13, 2003, 81쪽).

85) 각주 79와 같음.

86) 『答申書』 I, 「북청」, 37쪽.

[표 III-3] 학교별 입학 자격

학교	부형의 자산 / 졸업 후 농업 종사에 대한 의지 여부	연령	비고(*의 출처)
청주	재학 중 가사에 係累되지 않는 자	16~25세	
공주		12세 이상 16세 이상*	『禮山農學七十年』, 1980, 29쪽
전주	재학 중 가사에 係累되지 않는 자	12세 이상	
군산	재학 중 가사에 係累되지 않는 자	12~25세	
광주		15세 이상	
진주		12세 이상	
대구	상당 자산을 가지고 졸업 후 실지 경영의 예정이 확실한 자, 재학 중 가사에 係累되지 않는 자	13세 이상	
해주		12세 이상 16~25세*	『每日申報』 1914년 3월 8일자
춘천	농사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견고한 자 학자가 계속 (공급)될 소망(전망)이 확실하고 농업을 지망하는 자*	14세 이상	『每日申報』 1916년 2월 22일자
평양	상당 자산을 가진 자 재학 중 學資를 自辯할 수 있는 자로 부형이 상당 자산을 가진 자*	12세 이상 17세 이상*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12일자
의주	장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지망이 확실한 자* 가정에 상당한 토지와 재산이 있어 재학 중에 학비를 계속할 만하며, 졸업 후에도 농업을 경영할 만 한 자*	12세 이상 14세 이상*	『每日申報』 1916년 2월 1일자
영변	장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지망이 확실한 자* 가정에 상당한 토지와 재산이 있어 재학 중에 학비를 계속할 만하며, 졸업 후에도 농업을 경영할 만 한 자*	12세 이상 14세 이상*	『每日申報』 1916년 2월 1일자
함흥	재학 중 가사에 係累 없고 또 학자 공급의 길이 확실한 자 학자가 계속 (공급)될 소망(전망)이 확실하고 농업을 지망하는 자*	12세 이상	『每日申報』 1916년 2월 22일자
북청	재학 중 가사에 係累 없고 또 상당의 토지 자산을 가진 자	12년 이상	

자료: *가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實業學校要覽』, 5~7쪽(1913년 8월 조사 자료)에 의거해서 작성함.

셋째, 입학에는 농사 경험자, 양반 출신자, 그리고 가정과 지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장자가 우대되었다.⁸⁷⁾ [표 III-3]에서 확

87) 澁田市造, 「農業學校の經營法」, 『朝鮮彙報』(大正5年3月號), 1916, 104쪽.

인되듯이 각 학교에서는 법정 고시 연령보다도 높은 연령 기준을 입학 자격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농업학교 재학생들은 대체로 연령이 높았으며, 기혼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⁸⁸⁾

이상과 같이 초기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했던 농업학교는 권역 내의 보통학교·소학교·간이농업학교 등에서 이루어진 농업 교육을 감독하고, 지역 농민들을 지도하는 권업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⁸⁹⁾ 하지만 정작 학교 자체는 지역의 유일한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일제 강점 이전에는 3년제였던 것이 2년제의 짧은 교육과정으로 일괄 통일되었으며, 學科도 측량, 임업과 등은 전폐되고 오직 농업과만 남게 되었다.⁹⁰⁾

다음으로 농업학교의 규모와 구성원은 [표 III-4]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한 학교당 학급 수는 평균 2개로, 한 학년에 1학급씩 배당되어 단순한 규모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학교당 총 학생 수는 평균 60~90명 정도였으며, 1915년부터는 일부 일본인 학생도 입학했음이 확인된다.⁹¹⁾

88) 『實業學校要覽』, 42쪽의 자료에 따르면 1913년 8월 농업학교 학생 981명 중 12~13세가 17명(0.02%), 14~15세가 107명(10.9%), 16~17세가 304명(31.0%), 18~19세가 321명(32.7%), 20세 이상이 232명(23.6%)이었다. 농업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16세 이상이었던 것이다. 기혼자는 684명(69.7%)이었다.

89) 『答申書』I, 「청주」, 2쪽; 같은 책, 「전주」, 5쪽; 같은 책, 「안주」, 17~18쪽; 같은 책, 「춘천」, 34쪽 등.

90)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1년 10월 20일자, 「實業學校規則」(朝鮮總督府令 第113號) 別表 「農業學校教科課程及每週教授時數表」;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1), 833쪽.

91) 전주공립농업학교에서는 1914년부터, 대구공립농업학교에서는 1916년부터 각각 '강습생', '별과생'의 이름으로 일본인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었다(『每日申報』 1914년 4월 23일자; 1916년 2월 16일자; 朝鮮總督府, 『大正十二年十月 官公立農業學校長會議事項』(이하 『답신서』III), 「대구」, 228쪽).

[표 III-4] 농업학교의 규모와 구성원 현황 (1912~1919)

연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직원 수			
		전체	평균*	1학년	2학년	계	평균*°	일인	한인	계	평균*
1912	15	29	1.9	551	390	941	62.7	51 ×15	22 ×3	73 ×18	4.9 ×1.2
1913	14	28	2	631	348	979	69.9	46 ×13	19 ×2	65 ×15	4.6 ×1.1
1914	15	30	2	647	455	1,102	73.5	50 ×25	19 ×5	69 ×20	4.6 ×1.3
1915	15	30	2	752 △17	439 △14	1,191 △31	79.4	48 ×18	20 ×2	68 ×20	4.5 ×1.3
1916	15	30	2	750 △39	518 △17	1,268 △56	84.5	56 ×11	16 ×2	72 ×13	4.8 ×0.9
1917	15	31	2.3	791 △61	568 △19	1,359 △71	90.6	56 ×12	17	73 ×12	4.9 ×0.8
1918	17	33	1.9	805 △14	583 △46	1,388 △60	81.6	59 ×6	17 ×2	76 ×8	4.5 ×0.5
1919	17	35	2.1	728 △13	564 △29	1,292 △42	76.0	64 ×4	18 ×2	82 ×6	4.8 ×0.4

자료: 『朝鮮諸學校一覽』(1919), 189~190쪽

비고: ① ×는 겸직자, △는 일본인 학생이다.

② *은 학교당 평균이다.

③ °은 조선인 학생만 계산한 값이다.

직원 구성도 단출하여 한 학교당 학교장을 포함한 직원은 4~5인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 1명 정도는 겸직자에 해당하였다.⁹²⁾ 교사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조선인 교사도 활동하고 있었다. 학교 시설 또한 지방 농가의 처지를 참작하여 간이하게 하였다.⁹³⁾

이상에서와 같이 농업학교의 규모는 왜소하였고, 그 구성원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농업 교육은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업학교의 敎習은 실업학교에서의 敎授上 주의해야 할 점을 규정한 「實業學校規則」 제9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⁹⁴⁾

92) 해당 道の 技師 등 권업 방면으로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朝鮮總督府及道廳學務關係者並官公立學校職員名簿」, 『朝鮮教育會雜誌』25, 1914, 8~9쪽의 교장 겸직 참조).

93) 『實業學校要覽』, 부록 「大正二年十二月 農業學校學長會同ノ際ニ於ケル指示事項」(1913), 63쪽.

이는 다음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성실·신용·근검은 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므로 어느 교
과목에서도 항상 이에 유의하여 교수해야 한다.
- ② 지식·기능은 산업의 개량·진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을 선택하여 가르
치고 토지의 상황에 상응하여 실제에 적절히 맞도록 해야 한다.
- ③ 교수는 이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실습과 더불어 효과가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① 성실·신용·근검 등 농민이 갖춰야 할 덕성과 ② 조선 농
업의 ‘개량·진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별된 농업 지식·기능을 ③ 실습을
통해 교습하라는 것이다. ①과 ②는 농업학교의 교습 내용, ③은 농업학교
의 교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먼저 농민의 덕성과 관련된 訓育 방침은 농업학교 교수상 주의 사항 중
修身科와 관련된 항목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농업학교에서의 훈육
은 특히 “덕성 함양에 힘쓰고, 성실·근면한 농민의 육성을 기하는 것은 물
론, 篤行·利用의 습성을 馴致”시키는데⁹⁵⁾ 데에 목적이 있었다. 농민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은 1910대 농촌 사회의 불안·항거 등에 대응하는 조선총독부
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⁹⁶⁾ 그리고 근검 등과 관련된 농민
적 품성은 조선총독부의 농사 개량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토대로
여겨지고 있었다.⁹⁷⁾

94)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1년 10월 20일자, 「實業學校規則」(朝鮮總督府令 第
113號).

95) 『實業學校要覽』, 부록 「實業學校規則中改正并教授要目編製ニ關スル件」(1913년 2
월 19일, 官通牒 第422號), 72쪽.

96)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지식산업사,
1992, 128~130쪽.

[표 III-5] 영변공립농업학교 施設一覽 (訓練에 관한 내용)

· 방침 - 國民性的의 양성 實業者로서의 성격 양성 農國本의 신념 양성 助長·矯正해야 할 덕성의 措置 營農心의 양성 改良·發明·利用心의 양성 自學·自修·研究心의 양성	· 시설 - 교사의 감화·협동 통일 修身科로써 敎導 生徒手帳의 所持 조례·종례에서 훈련·검열 儀式에서 訓示 校風 양성 생도 신분 조사 良風美俗의 조사 가정·출신 학교와의 연락
--	---

자료: 『答申書』 I, 「영변」, 23쪽

농업학교에서의 훈련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시한 [표 III-5]는 영변공립농업학교의 훈련 방침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농업학교 학생들에게 충량한 일본 신민으로서의 국민성을 함양할 뿐 아니라, 농민에게 여러 가지 덕성을 육성시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實業者로서의 성격, 農本國의 신념, 助長해야 할 덕성, 營農心, 改良·發明·利用心 등의 항목은 결국 농민의 품성, 즉 實業을 존중하는 의식과 勤勞力行·근검절약의 습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 학생들에게 근로역행과 근검절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고안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휴업일이나 방과 후 시간에 학교에서 공급하는 짚(藁)으로 새끼를 꼬아 판매한 대금의 일부를 받아 저축하였다.⁹⁸⁾ 이와

97) 사와는 조선의 풍토가 농업에 매우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積年 惡政의 결과, 농사의 개량 진보를 企圖하지 않고 단지 헛되이 노력을 피하고 晚을 탐하여 유지한 농업을 踏襲하여 빈곤한 생활을 운영하는데 만족하는 폐풍”이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澤誠太郎, 『農業教育ニ關スル私見』, 5~6쪽). 조선의 농업 개발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선 농민들에게 근로, 근면 등의 농민적 태도를 순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98) 『答申書』 I, 「진주」, 9쪽.

유사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를 저축하게 하여 수학여행의 경비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다.⁹⁹⁾ 농업학교에서는 ‘검소와 도덕’, ‘검소와 건강-附 간이 생활’, ‘검소와 家富國營’, ‘검소와 強兵’ 등의 교재를 마련하여 교수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가정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액수 이상의 용돈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¹⁰⁰⁾ 학교에서 생산된 각종 식재료나 도구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였고, 기숙사에서는 米食을 자체하고 간소하게 식사하도록 하였다.¹⁰¹⁾

그 밖에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학생을 지도하였다. 교장이나 교사는 수신·조례·종례 시간이나 각종 의식을 거행할 때 훈화·훈시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心得, 충군애국, 國體精華, 일본의 國勢, 국가 사상, 국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¹⁰²⁾ 교관이라고 호칭된 교사들은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칼을 휴대하면서 엄격하게 규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¹⁰³⁾ 학생들에게는 生徒手帳을 지참하도록 하고 수시로 복장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¹⁰⁴⁾ 아울러 훈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 생도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個性調査),¹⁰⁵⁾ 생도의 성적을 교실에 게시하였다.¹⁰⁶⁾ 그리고 부형회 개최·가정 방문·통신 지도 등을 통해 생도 가정이나 출신 보통학교, 군청 등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학생 지도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¹⁰⁷⁾ 또한 학생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99) 위의 책, 「함흥」, 20쪽.

100) 위의 책, 「함흥」, 19쪽.

101) 위의 책, 「함흥」, 19~20쪽; 『春農工高百年史』, 2010, 188~189쪽.

102) 위의 책, 「영변」, 22쪽.

103) 『春農工高百年史』, 2010, 185쪽.

104) 『答申書』 I, 「진주」, 4쪽; 같은 책, 「진주」, 10쪽; 같은 책, 「함흥」, 35~36쪽.

105) 위의 책, 「공주」, 3쪽.

106) 위의 책, 「안주」, 15쪽.

107) 위의 책, 「공주」, 3쪽; 같은 책, 「진주」, 9~10쪽; 같은 책, 「평양」, 13쪽; 같은 책, 「의주」, 20쪽.

단체 활동에 따른 협동심 등을 기르게 하는 것도 훈육상 중시되었다.¹⁰⁸⁾

이와 같이 농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충량한 농민”, “성실 근면한 농민”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총독부의 농사 개량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實業學校規則」의 규정에 따라 농업학교 교과과정 중 농업 학과 비중은 강점 전에 비해서 크게 증대되었다.¹⁰⁹⁾ 조선총독부는 이듬해인 1912년 5월에 혼다 고노스케를 포함하여 농업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에게 「실업학교의 교과에 관한 조사」(이하 「實業教科調査」)를 실시하도록 명하였다.¹¹⁰⁾ 「實業教科調査」는 농업학교·간이농업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실상에 적합한 ‘일반적 표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착수된 것이다.¹¹¹⁾ 이 때 9명의 조사원은 조선 농업학교의 교수상 주의 사항으로 다음의 4가지 점을 거론하였다.

- ① 學理的 사항을 피하고 주로 응용적으로 教授
- ② 산업의 현재 및 장래에서 가장 주요한 사항을 주로 教授하고 직접 필요 없는 것은 제외
- ③ 道 권업 방침에 기반을 두어 가급적 적절하게 교수

108) 앞의 책, 「대구」, 7쪽; 같은 책, 「의주」, 19쪽.

기숙사생은 통학생에 비해 출석, 일본어 성적, 操行, 실습 勤怠 등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위의 책, 「안주」, 16쪽).

109) 각주 29의 「實業學校令施行規則」(1909)와 비교했을 때, 농업학교의 농업 과목은 1학년 9시간(30%)에서 10시간(33.3%), 2학년 15시간(50%)에서 18시간(60%)으로 증가했다.

110) 「실업학교의 교과에 관한 조사」의 경과와 대요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1915)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철 속에는 「실업학교 교과에 관한 조사 요항」을 비롯한 각종 의견서, 「농업학교 교과목에 대해 특히 주의할 점」, 「농업학교 및 간이농업학교 교수요목 중 내지에 비해 특수한 점」, 그리고 「실업학교규칙」의 개정에 관한 제반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다.

111)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實業學校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ニ付伺」(1913년 5월 23일), 211~213쪽.

④ 농업학교에서 특히 필요한 실습은 가급적 연락¹¹²⁾

여기에서 ④번을 제외한 ①~③번 항목은 결국 해당 지역의 권업 방침에 따라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지식·기능에 한정해서 가르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혼다 고노스케는 學理的 사항보다 응용적인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선인 학생이 연소하고 보통학의 지식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¹³⁾ 하지만 그 주장의 저변에는 동시대 일본 농업학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농업학교는 가르치는 것이 많아서 “마치 대학의 縮圖”와 같아 勞苦는 많지만 효과는 적다고 판단했던 것이다.¹¹⁴⁾ 따라서 그는 일본과 달리 조선의 농업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던 일본식 개량 농법 이외의 사항은 가급적 가르치지 않는 방침을 굳건히 하였다.

이후 「實業教科調査」의 결과를 반영하여 1913년 2월 15일에 「實業學校規則」이 개정되었다.¹¹⁵⁾ 이에 따라 농업학교 농업 관련 학과의 구체적인 과목과 수업 시수, 그리고 教授 程度가 [표 III-6]과 같이 정해지게 되었다.

112)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農業學校及簡易農業學校教授要目中内地ニ比シ特殊ナル點」(이하 「内地ニ比シ特殊ナル點」로 줄임), 119~120쪽.

113) 本田幸介, 앞의 논문, 16~17쪽.

114)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内地ニ比シ特殊ナル點」, 120쪽.

115)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3년 2월 15일자, 「實業學校規則中改正」(朝鮮總督府令 第9號).

[표 III-6] 농업학교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 중 농업 과목

농업 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시수	程度	시수	程度
作物	5	작물통론·보통작물·특용작물	3	원예작물
作物病蟲害	1	해충	1	병리
肥料			2	비료의 종류·성질·용법
土壤及農具			2	토양의 구성·분류·성질·토지개량 및 농구
養蠶	2	栽桑·飼育	3	사육·잠체생리·잠체병리·제종
畜産			2	가금·가축의 종류·관리·번식·사양 및 양봉
農産製造			1	농산제조법
森林	2	조림	3	조림·보호·측수
測量			1	측량법
經濟及法規			1	농업경제·농업법규
計	10		19	

자료: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3년 2월 15일자, 「實業學校規則中改正」(朝鮮總督府令 第9號) 別表 「農業學校教科課程及每週教授時數表」

여기에서 농업 관련 과목은 총 10개로 정해졌으며, 이 가운데 作物, 養蠶, 森林 과목에 비교적 많은 시수가 배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권업 방침에 부합하는 과목(작물, 양잠, 축산, 임업)을 조선 농업학교의 교과과정으로 特定한 결과였다.¹¹⁶⁾

이 중에서 1, 2학년을 통틀어 8시간을 교수하게 되어 있었던 작물 과목은 “농업상 가장 중요한”¹¹⁷⁾ 영역으로 간주되어 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물 중에서는 稻, 麥, 豆 등에 주력하여 교수하는 것이 원칙이었고,¹¹⁸⁾ 水稻는 교습 순서, 교습 시수, 교과서 분량면에서 우선시되었다. 이는 米作 개량에 힘썼던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¹¹⁹⁾ 水稻에 대한 교수는 品種, 種子, 苗垡의 비료와 관

116)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内地ニ比シテ特殊ナル點」, 122~126쪽.

117) 朝鮮總督府, 『作物教科書』(作物各論ノ部), 1914, 1쪽.

118)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内地ニ比シテ特殊ナル點」, 122쪽.

119) 『朝鮮總督府官報』(第460號) 1912년 3월 12일자, 「米作改良増殖獎勵ニ關スル訓令」(朝鮮總督府訓令 第10號).

리, 本田 비료, 插秧, 直播, 水旱害에 대한 給備, 수확 및 調製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 세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¹²⁰⁾ 조선총독부가 주의를 기울였던 ‘우량종’ 보급 정책에 따라서 농업학교에서는 아예 ‘우량종’으로 지정된 일본 품종과 재래종 일부만을 한정해서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비료의 사용, 관개 등도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향과 노선을 같이 하였다. 水稻 이외에 원예 작물로서 蔬菜는 농업상의 취미를 증진시키는 작물로 간주되어 학생들에게 교수되었다.¹²¹⁾

농업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양잠 장려 정책에 따라 양잠 과목도 중시되었다.¹²²⁾ 『實業教科調査』의 조사원들은 양잠에 대한 조선인 일반의 지식이 유지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농업학교에서는 桑의

120)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作物ニツキ特ニ主意スベキ点」, 104~106쪽.

水稻에 관한 교수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시수 計 35시간을 들여 교수할 것
- 米의 구조: 쌀의 조성분(분석류로 설명), 도의 원산지 등은 생략
- 품종: 内地(일본)의 교과서는 적게는 14~15종, 많게는 50종을 밝히도 것이 있다. 조선에서는 기술관 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内地種(일본 품종) 및 재래의 良種만으로 한한다.
- 종자: 특히 주의해 힘을 들 것
- 묘대 비료: 내지에서는 基肥 1회면 되지만, 조선에서는 補肥를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
- 묘대 관리: 내지에 비해 한층 灌溉 및 鳥害 등에 주의할 것
- 본전의 비료: 내지와 취지를 달리해서 早熟하도록 할 것
- 삼양: 내지보다 많이 심을 것. (조선인은) 기후 관계상 (벼가) 조숙하기를 원하므로 分蘖(本數의 증가)이 많아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 직파: 조선에서 없는 관개수를 결핍하기 쉽고 생육 기간이 짧아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 관개: 내지에 비해 주의하여 물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수한해에 대한 급비: 내지보다도 특히 주의하여 가르칠 것을 요한다.
- 수확 및 조제: 힘써서 품질상의 진전을 도모하도록 주의할 것

121) 朝鮮總督府, 『作物教科書』(園藝作物ノ部), 1914, 1쪽.

122) 『朝鮮總督府官報』(第460號) 1912년 3월 12일자, 「蠶業改良増殖獎勵ニ關スル訓令」(朝鮮總督府訓令 第11號) 참조.

품종 선택과 재배에서부터 蠶의 사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교수하였다.¹²³⁾ 아울러 森林의 중요성과 造林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¹²⁴⁾

이상과 같이 조선의 농업학교에는 법적으로 농업 관련 과목이 규정되어 구체적 교수 지침이 하달되었다. 그리고 정해진 교수 요목에 따른 교과서도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배부되었다.¹²⁵⁾ 이 점은 일본의 농업학교가 법령 상에 제시되지 않은 농업 과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의에 의해서 가설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¹²⁶⁾

[표 III-7] 농업학교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 중 數學, 理科, 圖畫, 體操

「實業學校規則」(1911)					「實業學校規則中改正」(1913)				
학과목	제1학년		제2학년		학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시수	程度	시수	程度		시수	程度	시수	程度
數學	4	산술, 기하	2	기하, 대수	數學	2	산술(주산 포함)	2	기하, 대수
理科	6	박물, 물리 및 화학	2	물리 및 화학	理科	4	식물 및 식물생리 동물 및 동물생리		
						2	물리 및 기상		
						2	화학(유기·무기) 및 광물		
圖畫	1	자제화, 용기화			-				
體操	2	보통체조, 기계체조			體操	1	보통체조, 기계체조	1	왼쪽과 같음

자료: ①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1년 10월 20일자, 「實業學校規則」(朝鮮總督府令 第113號) 別表 「農業學校教科課程及每週教授時數表」

②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3년 2월 15일자, 「實業學校規則中改正」(朝鮮總督府令 第9號) 別表 「農業學校教科課程及每週教授時數表」

123)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作物ニツキ特ニ主意スベキ点」, 112~113쪽.

124) 위의 책, 115~116쪽.

125) 『毎日申報』 1914년 1월 23일자; 1917년 7월 8일자.

126) 「農業學校規程」 제8조 3항(全國農業學校長協會 편, 『日本農業教育史』, 農業圖書刊行會, 1941, 121쪽). 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실업에 최적절한 특수한 사항, 예를 들어 양잠, 원예, 가금, 낙농, 농산제조, 제철, 조림, 임산제조 등한 사항 또는 수 사항을 주로 교수하는 것 등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농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시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된 「實業學校規則」에는 이전에 비해 농업 과목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고 2학년 농업 학과의 시수도 1시간 늘어나도록 명시되었다. 그렇지만 학년별 주당 총 시수는 오히려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감소되었다. 이 때 줄어든 시수는 모두 농업을 제외한 보통 학과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표 III-7]에 따르면 數學은 1, 2학년 합쳐서 총 시수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圖畫(도안과 회화)는 교수시수표에서 삭제되었다. 학년별 수업 배당에도 변동이 있었다. 즉, 體操가 1, 2학년에 균등 부과되었던 반면, 理科의 모든 시수는 1학년에 일괄 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수시수표에서 보통학과의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보통학과의 시수는 1학년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부적으로 정해진 농업과 교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실습이었다. 일본의 농업학교도 실습을 강조했지만, 강도와 비중면에서 조선의 농업학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계 휴업 기간은 농업 실습상 긴요한 시기였는데,¹²⁷⁾ 조선의 농업학교에서는 실습의 원활함을 위해 하계 휴업을 모두 폐지하기까지 하였다.¹²⁸⁾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每日申報』은 “內地(일본)의 동족 학교에서도 보지 못한 ... 조선 농업 교육의 특징”이며, 조선인들이 “종래 努力力役을 싫어하는 風이 있으므로 ... 창설 시일이 尙淺한 농업 교육의 발달상 실로 可喜할 現象”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¹²⁹⁾

실습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14개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127) 『實業學校要覽』, 부록 「實業學校規則中改正并教授要目編製ニ關スル件」(1913년 2월 19일, 官通牒 第422號), 72쪽.

128)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3년 2월 15일자, 「實業學校規則中改正」(朝鮮總督府令 第9號). 하계휴업의 폐지 여부는 「실업교과조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안건 중 하나였다(『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實業學校教科ニ關スル調査」, 141쪽의 1항 참조).

129) 『每日申報』 1913년 9월 9일자.

- ① 실습은 특히 修身科의 教授와 연락할 것을 요한다. 또한 수신과는 가급적 교장이 담당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습성을 기르는 것에 힘쓰고, 실습장에서는 교원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훈육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를 기할 것
- ② 실습의 교수는 가급적 교과목 담당 교원이 하도록 할 것
- ③ 농업 교과목의 교수는 가급적 실습과 함께 해 반드시 교과서, 교수요목 등의 기재 순서 등에 구애받지 않을 것
- ④ 교과과정에 기반하여 미리 실습 과정표를 조제하고 가급적 이를 따를 것
- ⑤ 실습의 시기, 시각은 계절 및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할 것
- ⑥ 생도 실습의 효과를 명확하게 會得시키고 또한 공동 작업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分配區 또는 共同區를 설치할 것
- ⑦ 實習手帳을 생도에게 배포하여 항상 휴대시키고 실습의 종류, 공정 기타 농업상 주요한 사항을 기입시킬 것
- ⑧ 직원은 모두 실습을 중시하고 특히 插秧, 收納, 紀念植樹 등과 같이 농업상 중요한 때에는 실습장에 나와 생도와 함께 작업하여 실습 효과를 현저히 크게 할 것
- ⑨ 생도의 생산물 또는 立毛(논밭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의 품평회 등을 개설하고 우등자에게 상여를 수여하는 등 실습의 취미를 증가시킬 것
- ⑩ 실습 작물의 종류는 오로지 지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適否가 확정되지 않은 것의 試作을 피할 것
- ⑪ 적당한 시기를 택해 권업기관 또는 농가에 대해 실지 지도를 행할 것
- ⑫ 농구 중 주요한 것은 예산이 허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이를 생도에게 교부하고 재교 중 자유롭게 취급하게 하여 졸업의 때 급여할 것
- ⑬ 성적 고사의 채점 표준은 보통교과목, 농업에 관한 교과목, 동 실습의 셋으로 나눠 각각 100점의 비례로 할 것
- ⑭ 착실한 기풍을 죽이고 輕佻浮薄에 빠지기 쉽고 또 실습의 취미를 감하는 경향이 있는 유희 운동은 이를 행하지 말도록 할 것¹³⁰⁾

130) 『實業學校要覽』, 부록 「實業學校規則中改正并教授要目編製ニ關スル件」(1913년 2월 19일, 官通牒 第422號), 73~75쪽.

위의 항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주된 목적에 따라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노동을 중시하고 실습에 취미를 기르는 등 농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세·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①, ⑥, ⑨, ⑭), 둘째, 실습을 농업에 관한 학과와 연결시켜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②, ③, ④, ⑤), 셋째, 실습의 결과를 극도로 높이고 학생들에게 이를 체화시키기 위한 것(⑥, ⑦, ⑧, ⑨, ⑩, ⑫, ⑬), 넷째, 지역 사회에 농사지도를 하기 위한 것(⑪)이었다.

이 가운데 실습의 결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개량 농법을 통해 생산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¹³¹⁾ 또한, 농업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收支計算을 세워보도록 하고, 집을 건설하거나 농구를 구입할 때 재료의 생산지, 보존기간, 이용의 정도, 物價 등을 조사시키거나 가르쳤다. 그리하여 농업학교에 다니는 자제들이 귀가했을 때 父兄들이 학교의 효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³²⁾ 그런데 ⑧과 ⑩의 항목은 실습이 교과과정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행해졌다기 보다는, 농업학교에서 교수하는 농법이 곧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는 선전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었다. 즉, 挿秧, 受納, 紀念植樹 등과 같이 농업상 중요한 때에 전 직원이 생도와 함께 실습장에 나와 투입인력을 늘리고,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은 작물은 試作하지 말고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물만을 심어서 생산력이 증진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⑥, ⑨, ⑬의 항목에서처럼 학생들 사이에 실습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침도 마련되고 있었다.

이렇게 농업학교에서 시행되었던 실습은 단순히 배운 것을 시험해보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농가에서 완전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고된 노동이 수반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과중한 부담

131) 本田幸介, 앞의 논문, 16~17쪽.

132) 위와 같음.

이 되었다. 실습은 학과와는 별도로 책정되어 대개 수업을 마친 오후에 진행되었는데,¹³³⁾ 그 내용은 학업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은 “강행군”으로 이루어졌다.¹³⁴⁾ 학생들은 “퇴비, 綠肥 저장, 豚舍·鷄舍 청소, 일반 농사는 물론, 채소·과수 재배·양잠·養畜과 造林에 열심하고, 측량까지 공부하며, 농사에 관한 실습으로 매일 연수”¹³⁵⁾하였다.

이 때 실습 과목은 농장 조성부터 시작해서 환경 조성 등 근로 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¹³⁶⁾ 생도들은 봄에 蠶繭 등의 사육방법을 배우고,¹³⁷⁾ 여름에는 교직원과 생도 모두 試作地로 나가서 소를 부려 이앙을 했다.¹³⁸⁾ 임업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소유했던 실습림에서 測量, 植木, 伐木, 製炭 등을 익혔다.¹³⁹⁾ 農産製造 과목으로는 糶摺, 蠶箔, 蠶筵, 俵, 叭(가마니)의 제조가 있었고,¹⁴⁰⁾ 그 밖에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로 잼 만들기, 단무지 담그기, 잠견부산물로 누에고치솜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교습하였다.¹⁴¹⁾ 학교 이사나 부속 건물 건설 및 증축도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모두 학생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¹⁴²⁾ 실습 관리와 감독은 매우 엄격한 편이어서, 어떤 학생은 실습 도중에 홍당무 하나를 뺏아먹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⁴³⁾

133) 『晉農八十年史』, 1990, 82쪽.

134) 金龍淵 외, 「두고 온 모교, 떠나 온 동창 8: 영변 농업학교」, 『北韓』44, 1975, 50쪽, 3회 졸업생 金龍淵 씨 회고담; 『春農工高百年史』, 2010, 187쪽, 9회 졸업생 김종식 씨 회고담.

135) 『晉農八十年史』, 1990, 645쪽, 3회 졸업생 金宅祚 씨 회고담.

136) 『春農工高百年史』, 2010, 187쪽, 9회 졸업생 김종식 씨 회고담.

137) 『每日申報』 1914년 7월 4일자.

138) 『每日申報』 1917년 7월 7일자; 『光州農業高等學校八十年史』, 1989, 155쪽.

139) 『春農工高百年史』, 위의 쪽.

140) 『普通學校·實業學校學事狀況報告要錄』(1913), 25~26쪽.

141) 『春農工高百年史』, 위의 쪽.

142) 『答申書』 I, 「청주」, 1쪽; 같은 책, 「의주」, 19쪽.

143) 李楨燮 외, 「두고 온 모교, 떠나 온 동창 7: 북청 농업학교」, 『北韓』43, 1975, 89쪽.

이런 가운데 보통학교 졸업 후 농업학교에 진학한 조선인 학생들은 실습만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은 강제로 모내기 실습을 시키는 학교 측에 대해 “우리는 공부하러 왔지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단으로 실습을 거부하였다.¹⁴⁴⁾ 북청공립농업학교에서는 실습 도중 동기를 퇴학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동맹 휴교를 전개하기도 했다.¹⁴⁵⁾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¹⁴⁶⁾ 가령, 진주공립농업학교에서는 입학생 30명 가운데 17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실습과 육체적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퇴학하기도 하였다.¹⁴⁷⁾

이상에서 농업학교에서는 충량한 농민이 갖추어야 할 각종 덕목과 일제의 권업 방침에 부합하는 개량 농법을 실습의 과정을 통해 교습하였음을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업학교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교수 방법에서 중시된 실습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생들은 이를 감내하면서 졸업하였다. 농업학교 당국자는 퇴학자의 감소가 조선인의 실업 정신이 고양된 증거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지역 내에 다른 중등 교육 기관이 없어서 농업학교를 선택한 학생 입장에서는 농업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보다도 학업을 마친 후의 진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농업학교의 교육 목표는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모색하는 조선인 학생의 기대와 교차·착종하면서 졸업생 취업 문제로 표출되고 있었다.

144) 『光州農業高等學校八十年史』, 1989, 155쪽.

145) 각주 143과 같음.

146)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展史: 政策篇』, 朝鮮農會, 1944, 317쪽.

147) 『每日申報』 1913년 8월 6일자.

IV. 卒業生の 就業實態

농업학교에서는 일제의 농업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조선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을 독려할 篤農家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농업 현실과 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농업학교 졸업생들이 온전히 농업에 종사하기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았다. 농업학교 졸업생들은 道内の 엘리트로서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관공서에 취직하고 있었다.

1912년에 농업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된 이래 1921년까지 농업학교를 졸업한 총 학생 수는 4,125명이었다. 그러나 졸업 후 바로 농사에 종사했던 졸업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표 IV-1]은 전국의 농업학교 졸업자 진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학교 졸업자들은 관공서에 취업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약 55%), 그 다음으로 농업 분야를 선택하고 있었다(약 27%). 그 외에도 상업 분야나 회사·은행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졸업생들이 진출한 분야의 전체적인 비율을 분석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졸업생들이 전체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15년 일본에서 농업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79.6%가 實業에 종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⁸⁾

148) 文部省專門學務局, 『全國實業學校ニ關スル諸調査』(1916), 140~156쪽. 1915년 졸업생을 1916년에 조사한 내역이다.

	實業		타학교 입학		교원		관청 봉직		병역		사망		기타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갑종농업학교	2,430	63.6	187	4.9	234	6.1	414	10.8	73	1.9	9	0.2	474	12.4	3,821	100.0	
을종 농업 학교	남	4,480	93.0	190	3.9	13	0.3	33	0.7	0	0.0	5	0.1	95	2.0	4,816	100.0
	여	373	72.7	47	9.2	0	0.0	1	0.2	0	0.0	1	0.2	91	17.7	513	100.0
	계	4,853	91.1	237	4.4	13	0.2	34	0.6	0	0.0	6	0.1	186	3.5	5,329	100.0
계	7,283	79.6	424	4.6	247	2.7	448	4.9	73	0.8	15	0.2	660	7.2	9,150	100.0	

[표 IV-1] 전국 농업학교 졸업자 진출 현황

조사 연도	관공서		농업		상급학교		기타		회사은행		상업		공업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913	426	59.6	170	23.8	83	11.6	16	2.2	15	2.1	5	0.7	0	0.0	715	100
1918	1,177	52.0	656	29.0	62	2.7	187	8.3	86	3.8	96	4.2	1	0.0	2,265	100
1921	2,144	52.0	1,131	27.4	203	4.9	236	5.7	292	7.1	119	2.9	0	0.0	4,125	100
평균		54.53		26.73		6.40		5.40		4.33		2.60		0.0		100

- 자료: ① 『實業學校要覽』(1914), 42쪽
 ② 『實業教育要覽』(1919), 33~34쪽
 ③ 『답신서』Ⅱ, 부록 14~17쪽

- 비고: ① 1913년, 1917년 그리고 1921년까지 누적된 농업학교 졸업자의 취직처를, 각
 각 1913년 8월, 1918년 1월, 그리고 1921년 8월에 조사한 것임
 ② 관공서 안에는 교원도 포함

농업학교 졸업생의 진출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IV-2]는 1912~1922년 동안 배출된 영변공립농업학교 졸업생의 취직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 310명 중 180명이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勸業方面에 고용된 인원이 50명, 行政方面은 45명, 그리고 教育方面에 고용된 인원은 63명이었다.

권업방면은 농업학교에서 익힌 농업 기술을 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업학교 졸업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 되었다.¹⁴⁹⁾ 이 방면으로 진출한 졸업생들은 道나 面, 각종 조합의 技手나 書記, 主事, 혹은 巡廻教師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 중에서 전주공립농업학교 졸업생인 金英斗의 경우처럼 졸업 직후 道나 郡 雇員으로 취직하여 십 수 년을 근무하면서 技手補를 거쳐 技手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가 되고 있었다.¹⁵⁰⁾

149) 각 道에서는 각종 권업 기관의 하급기술원으로 해당 도 농업학교 졸업생을 대거 고용했다. 이에 따라 1918년 경상북도에서는 대구공립농업학교 졸업생 67명이, 같은 해 평안남도에서는 평양공립농업학교 졸업생 51명, 안주공립농업학교 졸업생 4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大正七年十一月 農業技術官會同諮問事項答申書』(1918), 「경상북도」, 154쪽; 같은 책, 「평안남도」, 159쪽).

150) 『職員錄』 및 『朝鮮紳士寶鑑』, 1914, 244쪽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표 IV-2] 영변공립농업학교 졸업생(1912~1922)의 취직 상황

내역(명)		인원(%)	
實業	家事手傳(38), 商業及其他(18), 農業經營者(16), 蠶種製造業(9)	81(26.1)	
관공서	[勸業] 道産業技手補(12), 朝鮮總督府森林主事(10), 平安南道面技手(8), 道産業技手(5), 蠶業巡廻教師(5), 畜産組合技手及書記(4), 蠶業組合技手及書記(2), 棉作組合技手及書記(2), 米豆檢查員(2)	50	180 (58.1)
	[行政] 郡廳雇員(19), 面書記(15), 道廳雇員(5), 郡屬(4), 道屬(2)	45	
	[教育] 公立普通學校訓導(54), 公立普通學校囑託(4), 私立學校敎員(4), 公立農業學校敎諭(1)	63	
	[司法警察]	17	
	[其他]	5	
회사	[금융조합] 금융조합 서기(6), 금융조합 이사(2)	8	12
은행	[사설회사조합]	4	(3.9)
상급학교 수험자		15(4.8)	
직업주소 불명		11(3.5)	
사망		11(3.5)	
		310(100)	

자료: 『답신서』Ⅲ, 「영변」, 238쪽

행정 방면에 고용된 45명의 경우는 道·郡雇員, 面書記, 그리고 일부는 道·郡屬으로 진출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雇員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技手 정도로 승진할 수 있었다. 雇員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졸업생 중에는 普通文官試驗에 합격해서 判任官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⁵¹⁾ 判任官이 되면 屬 혹은 郡守 등에 임명될 수 있었다. 面書記로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면 서기 임용 요건에 농업학교 졸업자가 명문화되어 있어 고원보다도

151) 춘천공립농업학교 5회 졸업생 임용준은 고원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는 교장의 권유로 졸업 후 江原道 襄陽郡에 취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일본 사람의 심부름꾼밖에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들고 또한 희망도 없는 직장에 더 이상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수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모교 조교로 재직하면서 관입관 시험(보통 문관 시험)을 보아 합격하여 華川郡守까지 지냈다(『春農工高百年史』, 2010, 192쪽, 199쪽). 임용 준처럼 雇員→(보통문관시험)→道行政官→郡守의 경로로 출세한 농업학교 졸업생은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1935), 『朝鮮人事興信錄』(1935), 『朝鮮功勞者銘』(1935), 『新興之北鮮史』(1937) 등에서 다수 확인된다(이상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 수록되어 있다).

임용되기가 수월하였기 때문이다.¹⁵²⁾

교육방면으로 진출한 63명 가운데는 해당 道內 공립보통학교의 訓導가 되거나, 공립농업학교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법경찰이 되거나 기타 관공서에 취직한 인물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금융조합이나 사설회사 조합 등 회사·은행 방면으로 취직한 학생들과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감안한다면 농업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다양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초기에 조선의 농업학교가 설립되었을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범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생들이 대부분 관공리로 진출했던 이유는 농업학교가 道の 유일한 중등 교육 기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30일에 이미 「地方官官制」를 공포하고 개정을 거듭하여 道-府·郡·島-面의 지방 행정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¹⁵³⁾ 그런 가운데 각 지방 행정 단위의 관공서와 권업 기관, 보통학교 등에는 최소한의 조선인 인력이 요청되고 있었다. 하지만 道 안에는 이를 수급할 만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III-1]을 환기해보면,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배출하는 고등 보통학교는 1914년 이전까지 京畿道와 平安南道 2곳에만 있었고, 1919년에 이르기까지 3곳이 추가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師範學校도 없었기 때문에 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된 ‘임시 교원 양성소’, ‘교원 속성과’, ‘사범과’ 등의 단기 교원 양성소에서 소수의 교원만이 배출되는 형편이었다.¹⁵⁴⁾ 행정 인력이 요구되는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1917년 面制

152)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10월 5일자, 「面職員及傭人任免規程」.

153)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9월 30일자,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勅令 第357號);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5월 1일자,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中改正」(勅令 第66號) 등.

154)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제정·공포하면서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유일한 교원 양성 기관이었던 官立漢城師範學校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일반 중등 교육 기관에 단기간의 교원 양성 과정을 부설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朝鮮教育令」제4조, 제

시행 당시에 ‘공립농업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도 面書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명문화 하였다.¹⁵⁵⁾

이와 같은 사정은 농업 계통의 교육 기관에 있어서도 동일하였다. 각 道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조선총독부의 농사 개량 정책을 추진하는 勸業 업무였고, 이를 위해 道別 권업기관·단체·시설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¹⁵⁶⁾ 이에 따라 권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農務從事者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체에 농업학교는 20개가 채 되지 않았고, 농업 기술자 양성을 위한 고등 농업 교육 기관은 水原農林專門學校 1곳에 불과한 실정이었다.¹⁵⁷⁾ 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농업학교의 수가 월등히 많았고, 층위를 나눌 수 있는 위계화된 농업 교육 기관도 계통적으로 구비되어 있었다.¹⁵⁸⁾

14조, 제19조 참조). 이 시기의 단기 교원 양성소에 대해서는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0쪽의 표 II-2 참조.

155) 각주 152와 같음.

156) 道 주도로 설치한 대표적인 권업기관·단체·시설은 조선총독부 勸業模範場 支場 및 出張所, 道種苗場, 농사강습소 및 전습소, 그리고 朝鮮農會의 支會 등이었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8), 142쪽 참조.

권업은 郡 차원에서도 중요한 업무였다. 郡의 권업 시설에 대해서는 「忠清南道牙山郡三事業施設一覽」, 『朝鮮總督府月報』3-2, 1913 참조.

157) 조선총독부 농림학교가 승격된 수원농림전문학교는 당시 조선에서 農學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조선 農林業의 개발에 필요한 技術者 또는 經營者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4월 1일자, 「水原農林專門學校規程」(朝鮮總督府令 第30號)).

158) 1916년 일본에는 감중농업학교 81개교에 학생 14,329명과, 을중농업학교 189개교에 학생 21,939명이 재학하고 있었다(文部省專門學務局, 『全國實業學校ニ關スル諸調査』(1916), 4쪽, 6~7쪽). 농업학교의 상급기관으로 札幌農學校, 盛岡高等農林學校, 農科大學(實科), 農業教員養成所, 그리고 公私立實業專門學校 등도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문적인 농업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農科大學과 대학원까지 존재했다(高山昭夫, 앞의 책, 109쪽).

중등 교육을 받은 조선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학교 학생들은 졸업 이전에 이미 취직처가 내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¹⁵⁹⁾ 경상남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이루어졌다.

농업학교 본래의 목적은 졸업 후에는 농업에 종사하여 一般鮮農의 모범이 되는 것이지만, 현재 졸업생은 判任文官, 기술원, 학교 교사, 조합, 농업 기술원 혹은 사무원, 기타 관공리로 수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面書記에 채용하는 편의가 인정되어 끊임없이 졸업생의 천거를 부탁해오고 있지만, 졸업생의 공급이 부족하여 (천거를-인용자) 모두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¹⁶⁰⁾

농업학교 졸업생들이 “일반 관공리 및 학교 교사로 나아가는 것은 그칠 수 없는 형세”¹⁶¹⁾였던 것이다.

농업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취직을 선호하였다. 가령, 1914년에 의주와 영변공립농업학교 졸업생은 관청의 고원, 금융조합, 통역, 상급학교 입학 등을 지망하고 있었다.¹⁶²⁾ 1917년 전주공립농업학교 졸업생의 과반은 관리 희망자였다.¹⁶³⁾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표 IV-3]은 1923년 해주공립농업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장래 희망 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1지망으로는 官公衙 권업방면의 지망자가 압도적이었고, 제2지망으로는 농업관계의 조합·회사 및 관공아 권업 방면 지망자가 다수를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自家 營農 희망자는 1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농업학교 졸업자들의 자가 영농 기피와 관공직으로의 진출

159) 金龍淵 외, 「두고 온 모교, 떠나 온 동창 8: 영변 농업학교」, 『北韓』44, 1975, 51쪽, 3회 졸업생 金龍淵 씨 회고담.

160) 『大正七年十一月 農業技術官會同諮問事項答申書』(1918), 「경상남도」, 156쪽.

161) 『답신서』Ⅲ, 242쪽.

162) 『每日申報』 1914년 2월 27일자.

163) 『每日申報』 1917년 3월 2일자.

희망은 일반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¹⁶⁴⁾ 한편, 졸업생이 자가 영농에 뜻을 두었다라도 부형이나 친족 등 주위 인물의 반대로 그 뜻이 좌절되기도 하였다.¹⁶⁵⁾

[표 IV-3] 해주공립농업학교 재학생의 장래 지망 조사 (1923)

종 별	제1지망	제2지망
관공아 권업방면	20	7
농업관계의 조합 또는 회사	2	12
금융조합	2	5
자가 영농	1	0
미정	9	9

자료: 『답신서』Ⅲ, 「海州」, 331쪽

물론 졸업을 하고 난 뒤 농사 경영에 전념하고자 했던 학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농업학교에서도 학과 교육과 실습을 통해 누차 강조되었듯이, 일본 품종은 재래종에 비해서 수리 시설이 확충되고 多勞多肥의 집약적 농법이 행해지기만 한다면 수확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었다.¹⁶⁶⁾ 그리고 쌀 가격도 재래종보다 경쟁력이 높은 편이었다.¹⁶⁷⁾ 따라서 수리시설이

164) 『답신서』Ⅲ의 「卒業生就職ノ現況及將來ノ豫想竝之カ指導上特ニ研究實施セル事項及其ノ効果如何」 참조.

165) 『답신서』Ⅲ, 225쪽.

166) 1910년을 전후하여 권업모범장과 종묘장 등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일본 품종을 파종했을 경우 재래 품종에 비해 약 17.0~32.3% 정도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었다(정연태, 앞의 논문, 447~448쪽). 1913년도 말 全羅北道 沃溝郡의 川崎農場 소작 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재래종과 일본 품종의 1반보당 현미 수확량과 가격은 다음과 같았다(『朝鮮産業指針』(1915), 34쪽).

	재래종				일본 품종			
	종류	1반보당 (A)	1石당 가격 (B)	계 (C)	종류	1반보당 (D)	1石당 가격 (E)	계 (F)
①	倭サルベ	1石 2斗	15원 50전	18원 60전	高千穂	1石 8斗	17원 40전	31원 32전
②	アンジンベ	1石	15원 50전	15원 50전	日ノ出	1石 5斗	17원	25원 50전

①과 ② 모두 재래종에 비해 일본종의 수확량이 50%나 더 많았다[(D-A)/A×100].

167) 각주 166의 표에 따르면, 일본 품종의 가격이 재래종에 비해서 ①의 경우 약

갖추어진 양질의 토지를 보유하고 노동집약적 농법을 행할 수 있었던 일본인 농장은 물론이고, 조선인 지주 계급이나 일부 농민도 土地整理 및 작물 개량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있었다.¹⁶⁸⁾ 일례로 대구공립 농업학교에 재학했던 소수의 일본인 학생들은 졸업 후 부형을 돕거나 스스로 독립해서 농사를 경영하여 ‘모범 졸업생’이 되었다.¹⁶⁹⁾ 조선인 학생 중에서도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산성을 제고시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¹⁷⁰⁾ 청주공립농업학교 졸업생 4명 중에서 1명은 소작 경영으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5町步의 自作農이 되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米作보다 果樹나 蠶業 등으로 성공한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된다. 먼저, 『每日申報』에는 江原道 長官의 자제이자 춘천공립농업 학교 출신 李覺一, 李鮮吉(선길은 우등 졸업) 형제가 성공적인 과수 경영자로 소개되었다.¹⁷¹⁾ 이들은 휴일도 없이 노동복 차림으로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항상 행인으로 하여금 다리를 멈추게” 하고 “게으른 자로 하여금 스스로 용기 나게” 한다는 평을 받았다. 과수원을 약 만 여 평으로 확장시킨 이들 형제는 학교에서 익힌 과수 재배와 병충해 예방법을 “모두 완전”하고 “매우 주밀”하게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수확도 향상되어 수입액이 1915년에는 300원, 1916년에는 600원에 달하였고, 1917년에는 1,000원의 수입을 전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12.3%, ②의 경우 9.7% 정도 높았다[(E-B)/B×100]. 일본 품종으로 인한 수확량 증가를 감안하면 ①의 경우 약 68.4%, ②의 경우 약 64.5%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F-C)/C×100].

168) 『道長官會議諮問事項答申書』(1914), 195쪽.

169) 『每日申報』 1916년 2월 16일자; 『답신서』Ⅲ, 「대구」, 228쪽.

경상북도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지역이었고, 이곳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농업 경영 형태는 일부 과수·연초재배 또는 조림을 제외하면 전부 지주 경영이었다(이윤갑, 『한국 근대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농업 변동』, 지식산업사, 2011, 192쪽).

170) 『답신서』Ⅲ, 「淸州」, 220쪽.

171) 『每日申報』 1917년 5월 16일자.

『朝鮮彙報』에서는 蠶業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도 제시되었다.¹⁷²⁾ 1917년 공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李鐘玉은 졸업 직전에 충청남도청에서 발급하는 蠶種製造免許를 취득하여 해당 소재지에서 건평 총수 22평의 蠶室을 설치·운영하였다. 운영 첫 해에 지출 600원, 수입 625원으로 순이익 25원을 남겼고, 이듬해부터는 설치비를 포함한 초기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어 지출의 21배에 달하는 525원의 순이익을 예상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농업학교에서 교수하였던 응용 농법으로 수익을 전망할 수 있던 계층은 한정되어 있었다. [표 IV-4]는 1912년 청주공립농업학교의 생도 부형의 자산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생도 부형 44명의 전답 소유별 자산 상황(분류 ①)을 살펴보면¹⁷³⁾ 10~25정보의 광대한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부형이 7명이었던 반면, 1정보 이하의 영세한 규모로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부형은 총 15명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1두락도 소유하지 못한 無所有者가 10명에 달하였다. 즉 청주공립농업학교 학생 10명, 비올로는 전체의 22.7%가 졸업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기 소유 토지를 처음부터 갖지 못한 셈이었다. 경작 형태(분류 ②)면에서도 無耕作者 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작, 자소작, 혹은 소작농가였고, 이 중 순소작을 하는 생도 부형은 전체의 과반을 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自營을 하더라도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일제 강점 하 지주제의 구조 속에서 농사 개량에 따른 이익은 대개 지주에게로 귀결되었다.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농사 개량으로 순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을 유지하는 것조차 곤란하였다.¹⁷⁴⁾

172) 忠淸南道報告, 「公州農業學校卒業生就業狀況」, 『朝鮮彙報』(大正6年12月號), 1917, 144~145쪽.

173) 참고로 「農家經濟狀況調查書」에 따르면 1910년대 후반 충북 지역의 상·중·하류 농가는 각각 평균 8.77정보, 2.97정보, 0.47정보의 田畠을 소유하고 있었다(「農家經濟狀況調查書」에 대해서는 본 논문 각주 176 참조).

[표 IV-4] 청주공립농업학교 재학생 부형의 자산 상황 (1912)

分 類		名(%)	
① 田 畝 所 有 別	無所有者	0정보	10(22.7)
	20두락 이하	1정보 이하	5(11.4)
	50두락 이하	2.5정보 이하	13(29.5)
	100두락 이하	5정보 이하	4(9.1)
	200두락 이하	10정보 이하	5(11.4)
	500두락 이하	25정보 이하	7(15.9)
		44(100)	
② 自 小 作 別	無耕作者		7(15.9)
	순자작자		9(20.5)
	자작겸소작자		5(11.4)
	순소작자		23(52.3)
		44(100)	

자료: 「淸州ノ農業教育」, 『朝鮮總督府月報』3-5, 1912, 102쪽

비고: ① 청주공립농업학교 재학생 45명 중 1명은 보고되지 않았다.

② 1斗落은 중자 1斗를 播下하는 면적으로 地味의 肥瘠이나 지방의 관례에 따라 실제 면적이 다르다. 여기서는 『朝鮮産業指針』의 例에 따라 1두락=150坪 (=0.05町步)로 환산했다(『朝鮮産業指針』(1915), 「例言」, 3쪽).

조선총독부는 지주층을 중심으로 소작농을 통제하여 생산 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소작농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¹⁷⁵⁾ 이를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의 농업학교 학생이 농업에만 투신하기에는 당시 사회경제적 사정과 여건이 뒷받침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관공직에 진출하여 수입을 얻는 것은 가계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었다. 「農家經濟狀況調査書」(1918)에¹⁷⁶⁾

174) 정연태, 앞의 논문, 469~487쪽 참조.

175) 洪性讚, 『韓國近代農村社會의 變動과 地主層-20세기 前半期 全南 和順郡 同福面 일대의 事例』, 지식산업사, 1992, 55~56쪽; 李基勳, 「1910~1920년대 일제의 農政 수행과 地主會」, 『韓國史論』33, 1995, 272쪽.

176) 朝鮮總督府財務局臨時關稅調査課, 「農家經濟狀況調査書」, 『金融と經濟』6(부록), 1918.

「農家經濟狀況調査書」(1918)는 당시 조선 농가의 경제 상태를 알려주고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이다. 이 조사서에서는 조선의 농가를

따르면 농가의 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不動産 收入(농업 경영 소득 수입)보다 職業(賃勞動 등)이나 副業 收入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¹⁷⁷⁾ 평균 5.7인으로 구성된 下流層 농가의 일원이 농업 외의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전체 농가 수입의 50%를 차지할 정도였다. 따라서 부형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가족 모두가 농사에 전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족 전체에게는 유리하였다. 농업학교 졸업생들이 관공직에 임용되기를 원했던 저변에는 농업으로 인한 수입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던 농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당국자는 졸업생의 관공리 선호 현상에 대해 “근로를 업신여기며 實學을 싫어하는 弊風”¹⁷⁸⁾, “(無爲)徒食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을 천시하는 인습”¹⁷⁹⁾, “父兄, 鄉黨 및 졸업생 자신도 아직 官尊民卑의 風을 탈피하지 못한”¹⁸⁰⁾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응용 농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기 힘

上流·中流·下流로 나누고 각종 경제 수입 지출 항목 등을 비교했다.

177) 다음은 「農家經濟狀況調查書」을 바탕으로 全道の 상류, 중류, 하류 농가의 평균 가족 수(同居人과 雇人 포함)와 수입 구조를 정리한 표이다.

	가족 수		부동산		동산		직업		부업		기타		합
	人	円	%	円	%	円	%	円	%	円	%	円	
상류	13.3	2,203	82.4	201	7.5	103	3.9	82	3.1	86	3.2	2,675	
중류	8.9	507	70.1	44	6.1	79	10.9	56	7.7	31	4.3	723	
하류	5.7	77	27.2	7	2.5	142	50.2	36	12.7	21	7.4	283	

상류층의 경우 농업 경영으로 인한 부동산 수입(82.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동산 수입(7.5%)이다. 중류층은 상류층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수입(70.1%)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직업 수입(10.9%) 또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류층은 부동산 수입의 금액(77円)과 비중(27.2%) 모두 작은 반면, 직업 수입(50.2%)의 비중이 가장 크고 직업 수입의 액수(142円)도 상류층(103円)을 상회한다.

178) 위의 책, 「指示事項」, 1~2쪽.

179) 위의 책, 「大邱」, 228쪽.

180) 위의 책, 「晉州」, 230쪽.

든 현실에서 안정적인 관공직을 희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실제로 1913년 진주공립농업학교 졸업생의 상당수는 가계가 곤란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慶尙南道는 무리하게 농사를 강요하고 채용하기보다는 공립보통학교 교원 등의 직업을 알선해주었다.¹⁸¹⁾ 같은 해에 이 학교 우등 졸업생 權得龜는 가정 형편이 곤란하여 농사짓기를 단념하고 보통학교 교원으로 발령받아 모친을 봉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美談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¹⁸²⁾

졸업생의 관공리 진출 선호가 뚜렷한 추세 속에서 농업학교는 졸업생의 자영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1913년에 광주공립농업학교장 伊藤繁은 자산이 없고 자가 소유의 田畑이 없어 자영할 능력이 없는 졸업생에게 소작지를 주선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¹⁸³⁾ 이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모범 농장을 조성해서 졸업생을 소작시키거나 주변의 소작지를 알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였다.¹⁸⁴⁾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재산 기준을 강화하는 정도의 고식적인 대책 마련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농업학교 졸업생의 취직 실패는 중등 교육 기관을 가급적 억제했던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과, 토지 소유 문제를 방기한 채 기술 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집중했던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개별 농업학교 차원에서 관공리를 선호하는 졸업생의 취직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오히려 농업학교 졸업생들은 교장이나 교무 주임 등의 알선을 매개로 하여 관공리로 채용되

181) 『每日申報』 1913년 4월 15일자.

182) 『每日申報』 1913년 5월 31일자.

183) 伊藤繁, 「農業學校卒業生をして實習に従事せしむるや指導する方法に就て」, 『朝鮮教育會雜誌』16, 1913, 69~67쪽.

184) 『答申書』 I, 「청주」, 2쪽; 같은 책, 「안주」, 17쪽; 같은 책, 「북청」, 37쪽.

기도 하는 상황이었다.¹⁸⁵⁾

이런 형편에서 조선인들은 농업학교를 관리로 등용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농업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 녹록지 않음에도, “인내하고 학업에 열중하면 관리 또는 봉급 생활자가 보장되는 당시의 사정”¹⁸⁶⁾에 기대어 이를 극복해 나갔다. 농업학교는 “졸업하면 관임관은 물론 군수, 교장은 틀림없는 후보라 하여 모든 사람의 희망의 대상”¹⁸⁷⁾이 되었고, 그 위상은 지역 내에서 확고히 다져지게 되었다. 1910년대 후반 강릉에서 전개되었던 농업학교 설립 운동은 그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강릉의 지역 유지들은 강릉에 道立 농업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발기인을 조직하고 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업학교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중에서 結 2원 이상 납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을 받고, 道參事와 실업가에게는 각각 4백원을 기부받는 것으로 정했다.¹⁸⁸⁾ 농업학교가 지역 내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지역민의 여망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191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졸업생들이 사회적 수요를 따라 관공직으로 진출하는 경향은 더 이상 막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1910년대 후반이 되면 농업학교의 설립 목표와 취지는 다음의 보도 내용에서와 같이 그 外延을 확대하게 된다.

185) 『每日申報』 1912년 4월 5일자; 黃雲性, 『韓國農業教育史』, 大韓出版社, 1967, 129쪽; 『春農工高百年史』, 2010, 192쪽.

186) 『春農工高百年史』, 2010, 177쪽.

187) 『晉農八十年史』, 1990, 645쪽, 3회 졸업생 金宅祚 씨 회고담.

188) 『每日申報』 1916년 11월 19일자, 1917년 3월 18일자, 9월 21일자.

결 2원은 토지 1결에 가장 낮은 結價가 적용된 지세 납부 금액이다(『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3월 16일자, 「地稅令」(制令 第1號)). 따라서 계획대로 학교 설립 운동이 추진된다면 지세 납세자는 모두 기부금을 내야 했다. 한편, 강릉에 실제로 농업학교가 설립된 것은 운동이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1928년이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8년 6월 18일자, 「江陵公立農業學校設」).

원래 실업학교의 要義는 그 수료자로 하여금 實業自營者가 되게 함에 있다. 그러나 과도기에 있어서는 이들 수료자를 公務員 또는 準公務員으로 채용하며, 그 분포가 주밀한 시기에 달하면 자연히 自營者를 내보내어 권업행정에 기여하는 일도 多大하기에 이르나니¹⁸⁹⁾

즉, 농업학교 졸업생이 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공리 진출 등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投身하는 현상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의 자료에서와 같이 조선의 중등교육 기관이 확충되면 다른 학교의 졸업생처럼 농업학교 학생도 점차 본래의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었다.

종래 공립농업학교는 조선에서 유일의 지방중등교육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졸업생은 구태여 鄉里에서 實地 營農을 하지 않아도 質의 良否를 묻지 않고 널리 관공리 각 방면에 취직하였다. 그렇지만 近時 교육 기관의 확충과 함께 교원으로서는 師範學校(敎員養成所) 졸업생, 금융조합에는 상업학교 졸업생, 書記 또는 이런 류의 방면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의 취직을 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농업학교 졸업생은 본래의 목적인 實地營農 또는 農業技術員의 範圍에 한정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¹⁹⁰⁾

여기에서 이제 농업학교의 목적은 실지 영농인 양성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 기술원을 배출하는 범위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농업학교 학생들은 일제 강점 초부터 농업 지도 기관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관공직에 취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일선 농업학교에서도 원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보다 그 외연을 확장하여 권

189) 『每日申報』 1917년 7월 18일자.

190) 『답신서』Ⅲ, 222쪽.

업 방면 등으로의 진출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업학교 졸업생은 농업에 종사하고 조선 농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농업학교의 목표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¹⁹¹⁾ 이렇게 일제시기의 농업학교는 모범 농민 양성 기관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취업의 유력한 등용문으로 기능하였다.

191) 1935년 경성공립농업학교 교장 노무라 미노루(野村稔)는 농업학교 학생이 대부분 취업하는 상태에서 이들을 '歸農이라는 한 단어로 처리'하는 것을 문제시 하였다(孫庸碩, 「1930~1940년대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운영과 성격」,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9쪽). 이때까지도 농업학교 졸업생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1935년 趙晩植이 農事學院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농사학원은 당시의 농업학교들처럼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던 점도 농업학교의 원래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趙晩植, 「청년과 사회 봉사」, 차동석 編, 『한국대표는 설선: 선각자와 개척자의 명논설과 인물평전』, 새발사, 1982, 496쪽).

V. 結 語

지금까지 일제강점초 농업학교의 설립·운영 및 졸업생의 취업 동향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과 이를 둘러싼 조선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았다. 이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고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작업을 매듭짓고자 한다.

대한제국은 殖産興業政策의 일환으로 商工 중심의 실업 교육을 실시했다.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가 운영과 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통감부가 들어서면서 실업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변질되었다. 통감부는 조선의 문명 부강을 위해서 실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전하였고,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무마·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정치색이 가미된 인문교육은 가급적 배제시켰다. 또한, 실업교육의 내용도 商工 교육이 아닌 농업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조선의 米穀을 개량·증산하여 이를 일본에 반출하는데 농업 교육이 가장 긴요했기 때문이었다.

농업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일제는 각 道에 농업학교를 설립하였다. 통감부가 구상한 초기의 농업학교는 농업 개량을 추진하고, 토지조사사업 및 지역의 從業者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농업학교는 한층 변화되었다. 이 시기 농업학교는 일제의 농사 개량 정책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모범적인 농업 경영을 하면서, 조선 농민에게도 개량 농법을 지도·장려할 수 있는 篤農家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충량한 농민”, “성실 근면한 농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총독부의 농사 개량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농업학교의 교육 목표는 그 學制와 敎習 실태의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강점 초기에 농업학교에서는 졸업 후 스스로 농업을 경영할 만한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별하여 입학시켰으며, 교육 과정

또한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실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내용을 교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농업학교 학생들은 근검, 성실 등 일제가 조선 농민에게 요구했던 각종 덕목과 조선 농업의 '개량', '진보'에 이바지할 만한 것으로 지정된 선별적인 지식 기능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농업학교에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일본과는 달리 응용적이고 근시일 내에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농업 교과목과 교육과정이 강제되었다. 특히 '優良種'(일본 품종)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作物' 과목의 비중을 현저하게 높이 책정하였다. 이 모든 교육 과정은 실제 農家에서처럼 완전한 농사를 짓는 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體化되었다.

하지만 농업학교가 모범농을 배출하는 본래의 교육 목표를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려운 實情이었다. 농업학교 학생들은 道内の 秀才들로서 중등 본위의 교육을 받고자 했으며 그 나름의 사회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졸업생은 해마다 관공직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종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졸업생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 농업학교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일본 농업학교 졸업자와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일본 농업학교 졸업자들의 약 80%는 졸업 후 곧바로 實業에 종사했지만, 관청 봉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이유는 조선의 교육적 여건이 일본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초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중등 교육 기관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업학교가 지역 내에서 거의 유일한 중등 교육 기관이었다. 이에 농업학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정책 수행을 보조할 農務從事者, 行政人力, 敎員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선인 농업학교 졸업자들은 부차적인 職

務이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농업학교 졸업생들이 직접 농사를 경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도 취업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동인이 되었다. 농업학교 졸업생 중에는 학교에서 습득한 개량 농법을 적용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 기반이 취약했던 대부분의 학생은 졸업 후 농업 경영을 하는 것보다 職業을 얻어 가계 수입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에 농업학교에서는 졸업생의 자가 영농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영농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조선의 농업학교는 관직으로의 등용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191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졸업생들이 사회적 수요에 따라 관공직으로 취업하는 행보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권업 방면으로 진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본래의 농업학교 설립 목적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선의 농업 개량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 농업학교는 이후로도 모범 농민 양성 기관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공리 등의 진출 통로가 되는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이상에서 일제 강점 초 농업학교의 설립·운영과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진단하였다. 강점 후 농업학교는 지주층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에 따라 篤農家를 양성하기 위한 실업 교육 기관이었다. 하지만 농업학교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던 중등 교육 기관의 하나이기도 했다. 조선인 학생들은 일제하 지주제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로 진출하였다. 이는 일제의 농업 정책 및 교육 정책이 기층 조선 사회와 충돌하면서 빚어진 현상이었다.

參 考 文 獻

1. 資 料

『高宗實錄』, 『舊韓國官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月報』, 『朝鮮彙報』, 『日本外交文書』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每日申報』

『朝鮮教育會雜誌』, 『韓國中央農會報』, 『朝鮮農會報』

學部, 『第二回官公立普通學校校監會議要錄』, 1908.

澤誠太郎, 『農業教育ニ關スル私見』

寺內正疑(추정), 『朝鮮學制案ノ要旨』

朝鮮總督府學務局學務課, 『農業學校ノ教科ニ關スル調査ノ件』, 1915.

朝鮮總督府, 『作物教科書』(作物各論ノ部), 1914.

朝鮮總督府, 『作物教科書』(園藝作物ノ部), 1914.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普通學校實業學校學事狀況報告要錄』, 1911.

朝鮮總督府, 『大正五年十二月 農業學校長會同聽取事項答申書』, 1916.

朝鮮總督府, 『大正十年十一月 實業學校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1921.

朝鮮總督府, 『大正十二年十月 官公立農業學校長會議事項』, 1923.

『各種教育統計』, 1910.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朝鮮人教育實業學校要覽』, 1914.

朝鮮總督府學務局, 『實業教育要覽』, 1919.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諸學校一覽』, 1919.

朝鮮總督府學務局學務課, 『學事參考資料』, 1937.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 1913, 1918.

『朝鮮總督府忠清南道統計年報』, 1913.

『朝鮮總督府平安南道統計年報』, 1915, 1916, 1918.

『朝鮮產業指針』, 1915.

「農家經濟狀況調查書」, 1918.

朝鮮總督府, 『大正七年十一月 農業技術官會同諮問事項答申書』, 1918.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 編,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 1918.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1930.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第6卷 上), 巖南堂書店, 1964.

渡部學·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65·66·69, 龍溪書舍, 1991.

文部省全文學務局, 『全國實業學校ニ關スル諸調査』, 1916.

文部省, 『日本の教育統計: 明治-昭和』, 1971.

光州農業高等學校·光州農業高等學校同窓會 編, 『光州農業高等學校八十年史: 1909~1989』, 1989.

大邱農林高等學校 編, 『大農五十年史』, 1960.

禮山農業專門大學 編, 『禮山農學七十年』, 1980.
北靑公立農業學校同窓會 編, 『北農百年史: 1888~1993』, 1993.
井邑公立農業學校, 『井邑公立農業學校要覽』, 1939.
濟農八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濟農八十年史』1·2, 1990.
晉農八十年史編纂委員會 編, 『晉農八十年史: 1910~1990』, 1990.
청농팔십년사편찬위원회 編, 『청농팔십년사』, 1991.
春川農工高等學校總同窓會 編, 『春農工高百年史: 2010年 開校 100周年
紀念』, 2010.

沙里院公立農業學校同窓會, 『礎-沙農會誌』, 1995.
平壤農業(專門)學校同窓會, 『美林』5, 1989.

李楨燮 외, 「두고 온 모교, 떠나 온 동창 7: 북청 농업학교」, 『北韓』43,
1975.
金龍淵 외, 「두고 온 모교, 떠나 온 동창 8: 영변 농업학교」, 『北韓』44,
1975.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2. 著 書

고마고메 다케시 著·오성철 外 譯,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
비평사, 2008.
김도형, 『大韓帝國期の 政治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94.
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2009.
金容燮,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韓末·日帝下の 地主制와 農業問題』(증보
판), 지식산업사, 2000.

-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Ⅱ)』, 지식산업사, 2004.
- 리진호, 『한국지적사』, 바른길, 1999.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지식산업사, 1992.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교육 100년』, 2006.
- 善隣中·高等學校同門會, 『善隣80年史』, 1978.
- 安秉直 編,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比峰, 1990.
- 李基勳, 「1910~1920년대 일제의 農政 수행과 地主會」, 『韓國史論』33, 1995.
- 이원호, 『실업교육』, 하우, 1996.
- 이운갑, 『한국 근대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농업 변동』, 지식산업사, 2011.
-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 植民地 教育政策史』, 一志社, 1985.
- 차동석 편, 『한국대표논설선 : 선각자와 개척자의 명논설과 인물평전』, 새발사, 1982.
- 韓國農業教育史 編纂委員會, 『韓國農業教育史』, 大韓教科書, 1994.
- 한국농촌진흥청 編, 『농업 근대화의 여명』, 2008.
- 洪性讚, 『韓國近代農村社會의 變動과 地主層-20세기 前半期 全南 和順郡 同福面 일대의 事例』, 지식산업사, 1992.
- 高山昭夫, 『日本農業教育史』, 農山漁村文化協會, 1981.
-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展史: 發達篇』, 朝鮮農會, 1944.
- 全國農業學校長協會 編, 『日本農業教育史』, 農業圖書刊行會, 1941.
- 井上晴丸, 『日本資本主義の發展と農業及び農政』, 中央公論社, 1972.
- 楫西光速 外, 『日本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全)』, 東京大學出版會, 1958.
- 黃雲性, 『韓國農業教育史』, 大韓出版社, 1967.

3. 論 文

- 姜萬吉, 「大韓帝國時期的 商工業問題」, 『亞細亞研究』16-2, 1973.
-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2009.
- 吉川萬壽彦, 「統監府의 實業教育政策과 土地調査事業 : 學部次官 俵孫一 (1869-1944)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설립과정과 역사적 성격」, 『농업사연구』, 9-1, 2010.
- 김영희, 「開港後 蠶業振興法の 一研究(1876~1905)」,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태웅, 「일제강점기 김진구(金振九)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 13, 2003.
- 김홍수, 「1905년~1910년의 민족교육운동의 실태」, 『역사교육논집』26, 2000.
- 리진호, 「한국 토지조사사업 중 교육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2-2, 2010.
- 孫庸碩, 「1930~1940년대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운영과 성격」,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_____, 「일제강점기 농업학교 운영 연구-경성공립농업학교 교장 野村稔의 역할을 중심으로」, 『郷土 서울』80, 2012.
- 劉奉鎬, 「大韓帝國下 實業教育 展開考」, 『大韓帝國研究』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4.
-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李光麟, 「農務牧畜試驗場의 設置에 대하여」,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 乙酉文化社, 1969.
-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성열, 「제3차 한일협약 전후 관공도립실업학교의 변화-일본인 학부차관의 교육간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26(1), 2004.
- 이송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분석」, 『史學研究』104, 2011.
- 李漢基, 「日帝時代 農村指導事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현창, 「구한말 일제초 농가경영의 구조와 상품화폐경제」,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農業政策과 植民地 地主制: 이른바 「米作改良政策」을 중심으로」, 『韓國史論』20, 1988.
- 조재근, 「대한제국기의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 『한국학논총』34, 2010.
- 洪德昌, 「大韓帝國時代の 實業教育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홍은정, 「일제시기 面職員의 존재형태와 해방 후 활동」, 『역사와 세계』35, 2009.
- 吉野誠, 「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12, 1975.
- 松本武祝, 「1910年代における農事改良政策と在村地主層」, 『植民地權力和朝鮮農民』, 社會評論社, 1998.
- 土井浩嗣, 「1910年代の朝鮮における公立農業學校-植民地期朝鮮の勸農體制と關連して」, 『동북아문화연구』13, 2007.

Abstract

An Analysis on Chosŏn Agricultural Schools: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Graduate Employment Patterns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Jee Won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iscusses the agricultural policy of the Chosŏn Ch'ongdokpu (朝鮮總督府, Government-General of Chosŏn) by examining the establishment, educational goals and operation of Chosŏn agricultural schools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he conditions of education conducted in Chosŏn were analyzed through the status of agricultural schools and patterns of its graduate employment.

Chosŏn agricultural schools were first established by T'onggambu (統監府, Japanese Residency-general) to train survey-assistants required in the Chosŏn land survey project, but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Chosŏn in 1910, it was modified and became an

elite-farmer (篤農家) training institution. The foremost reason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Chosŏn was a need to find a solution for its domestic food shortage, and on this account, Japan exerted every effort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on in Chosŏn, including the promotion of new agricultural techniques. Elite-farmers trained in agricultural schools were expected to be a mediator between the government and general farmers, by being well-acquainted with Chosŏn Ch'ongdokpu's agricultural improvement policy, and by encouraging and instructing other Chosŏn farmers to apply new techniques.

In this article, two characteristics of Chosŏn agricultural schools were examined. First, it was based on a low-leveled (低度), simple (簡易) education school system. Only the knowledge and skills directly related to the improvement policy, especially the usage of 'improved seeds' (優良種), were included in the curriculum. In addition, the primary method of this education was practical training. Second, it was the highest secondary school in most of the Chosŏn provinces,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Chosŏn Ch'ongdokpu strictly controlled the installation of other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high common schools (高等普通學校), or various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he second factor led to mass employment of Chosŏn agricultural school graduates in various low-level positions. Of all graduates, about 60% were employed and became minor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or teachers, whereas only about 25% became farmers. This was a phenomenon that differed very markedly from Japanese agricultural schools. 80% of the graduates from there became farmers.

This pattern in graduate employment, conflicting with the school's educational purpose, was caused by two structural factors. The first factor is the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osŏn. Because of it, the status of Chosŏn agricultural schools was naturally elevated. The second factor is that agricultural school graduates were driven to escape the farmlands under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Chosŏn agriculture, including the landlord system under Japanese occupation. Only graduates from families who were large-scaled landowners could benefit from new agricultural techniques. Others did not possess sufficient farmlands to succeed, thus the prospect of a fixed income was a huge incentive for employment.

In conclusion, the pattern in Chosŏn agricultural school graduate employment was a result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Chosŏn Ch'ongdokpu's agricultural policy and the education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Chosŏn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Keywords : Agricultural Schools, Agricultur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Elite-Farmer(篤農家), Graduate Employment

Student Number : 2008-23175